

연구보고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



충청남도의회



나사렛대학교
KOREA NAZARENE UNIVERSITY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석말숙(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원	천덕희(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 겸임교수) 최선아(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수료)
연구간사	이은민((사)한국여행서비스교육협회 이사)

목 차

I. 연구 개요	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 내용	13
나. 연구 방법	13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
4. 연구추진일정	14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5
1. 문화복지관광	17
가. 문화관광의 개념	17
나. 복지관광의 개념	18
다. 문화복지관광의 조작적 정의	20
2. 문화복지관광의 대상 현황과 제도	20
가. 관광약자현황	20
나. 국내 문화복지관광 제도	25
다. 해외 문화복지관광 제도	41
3.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현황과 제도	49
가. 충청남도 관광약자 현황	49
나.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제도	50
다.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사례	60
4. 소결	65
III. 충남 거주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경험과 욕구 조사	68
1. 충남 거주 저소득층 대상 설문조사 분석	70
가. 조사 개요	70
나. 분석 결과	71
2. 소결	79

IV.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	81
1. SWOT 분석	83
가. 분석 개요	83
나. 분석 결과	84
2. 소결	86
V. 결론	88
참고문헌	95
부록(설문지)	98

표목차

〈표 I -1〉 연구추진일정.....	14
〈표 II -1〉 고령자 연간 총소득 현황.....	23
〈표 II -2〉 고령자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23
〈표 II -3〉 고령자 정보화 기기 사용 현황.....	23
〈표 II -4〉 고령자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 현황.....	24
〈표 II -5〉 등록 장애인 연령 분포.....	24
〈표 II -6〉 향후 관광약자 유형별 추계인구.....	25
〈표 II -7〉 열린 관광지 지역 현황.....	26
〈표 II -8〉 여행바우처 정책의 변화과정.....	28
〈표 II -9〉 2020년 기초자치단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순위.....	36
〈표 II -10〉 2014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1
〈표 II -11〉 2015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1
〈표 II -12〉 2016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2
〈표 II -13〉 2017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2
〈표 II -14〉 2018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3
〈표 II -15〉 2019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3
〈표 II -16〉 2020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4
〈표 II -17〉 2021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4
〈표 II -18〉 2022년 문화복지카드 이용현황.....	55
〈표 II -19〉 2014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6
〈표 II -20〉 2015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6
〈표 II -21〉 2016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7
〈표 II -22〉 2017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7
〈표 II -23〉 2018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8
〈표 II -24〉 2019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8
〈표 II -25〉 2020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9
〈표 II -26〉 2021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9

〈표Ⅱ-27〉 2022년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60
〈표Ⅲ-1〉 충남 거주 저소득층 대상 설문조사 주요 항목.....	71
〈표Ⅲ-2〉 충남 거주 저소득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2
〈표Ⅲ-3〉 선호하는 여가 프로그램.....	73
〈표Ⅲ-4〉 일상에서의 관광 필요 정도.....	73
〈표Ⅲ-5〉 최근 1년 사이 관광 경험 빈도.....	73
〈표Ⅲ-6〉 향후 1년 이내 관광 계획.....	73
〈표Ⅲ-7〉 선호하는 관광 유형.....	74
〈표Ⅲ-8〉 선호하는 국내 관광 지역.....	74
〈표Ⅲ-9〉 선호하는 관광 기간.....	74
〈표Ⅲ-10〉 선호하는 관광 파트너.....	74
〈표Ⅲ-11〉 선호하는 관광 교통편.....	75
〈표Ⅲ-12〉 선호하는 관광 숙박시설.....	75
〈표Ⅲ-13〉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	75
〈표Ⅲ-14〉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대한 만족도(n=229).....	75
〈표Ⅲ-15〉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만족스러운 이유(n=151).....	76
〈표Ⅲ-16〉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만족스러운 이유(n=16).....	76
〈표Ⅲ-17〉 관광 동기.....	77
〈표Ⅲ-18〉 관광 제약.....	77
〈표Ⅲ-19〉 관광 노력.....	78
〈표Ⅲ-20〉 관광 참가 의도.....	78
〈표Ⅲ-21〉 관광을 위해 지원되었으면 하는 제도(1순위).....	79
〈표Ⅲ-22〉 향후 정부 경비 지원 여행에 대한 참가 의향.....	79
〈표Ⅳ-1〉 SWOT 분석 결과.....	85
〈표Ⅳ-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86

그림목차

[그림 II-1] 통계청 인구 상황판, 2023년 기준	21
[그림 II-2] 통계청 2023년 고령 인구 비중, 2023년 기준	22
[그림 II-3] 통계청 2023년 초고령 인구 비중, 2023년 기준	22
[그림 II-4] 아주경제 기사 사진	35
[그림 II-5] 충청남도 문화복지카드 사용현황	50
[그림 II-6] 문화복지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55
[그림 II-7] 공주시 노인복지관 사례	60
[그림 II-8]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례	61
[그림 II-9] 예산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례	61
[그림 II-10]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례	62
[그림 II-11]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사례	62
[그림 II-12]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례	63
[그림 II-13]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모형 제시	66

I

연구 개요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가.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는 관광권

- 현대인에게 관광이 휴식과 여가를 보내는 수단으로 보편화되면서 관광권은 인간의 다른 권리만큼이나 중요하며 여가향유권 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나. 문화관광의 개념과 복지관광의 개념을 혼합하여 문화복지관광을 정의함

- 문화관광이란 “관광객이 타국이나 타 지역을 유·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관광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박세중, 2014). 특히 관광분야의 시각에서 문화관광을 살펴보면 생산물로서의 문화(Product-based Culture)는 박물관, 유물, 유적, 예술품, 음악, 문학작품 등 유형적인 문화임(정미영, 2017)
- 복지관광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직·간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문화복지관광은 복지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및 관광약자에게 일상 생활권에서 벗어나 역사 유적 및 목적지의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으로 정의하고자 함. 목적지의 문화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례·춤·생활양식 등의 무형문화와 박물관·유물·유적·예술품·음악·문학작품·음식 등의 유형문화를 포함
- 문화복지관광의 목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인 관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인간의 행복권 증대, 생활의 질 향상,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통해 통합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음(이종문, 1998)

다. 관련 연구의 부족

- 그동안 취약계층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조성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나, 모두가 더불어 여행할 수 있는 복지가 연결된 선진국형 문화복지관광 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라. 저소득층에게 여행의 자유 및 복지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화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권리에 관련한 문제를 시작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제로 하여 저소득층 관광객에게 여행의 자유를 제공하고 복지 요소를 상승 및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국내 문화복지관광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분야의 노인시장에 관한 연구(고상동·김상희, 1996; 박근수, 1998)가 주를 이루었음
2000년대 초반 연구동향 역시 노인층의 개인특성을 반영한 관광객 행동에 관한 연구(오석윤·오석찬, 2000; 정성채, 2002)가 많았고, 2000년도 후반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배만규·박상훈, 2008; 이봉구, 2008; 전영록·박상훈, 2009)로 확대되었음
- 2010년 이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관광행동 및 관광제약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 또는 노인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 국내 문화복지관광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관련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저조한 충남의 문화복지관광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대한 문헌조사 및 도내 실태조사를 통하여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관광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함
-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 문화복지관광 관련 정책 및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선진 외국 및 도시의 문화복지관광 복지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관련 예산, 정책 및 인프라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충남 지역 문화복지관광관련 환경을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형 문화복지관광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할 것임. 저소득층 요구사항과 충남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저소득층 문화복지관광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 문화복지관광 관련 정책 및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선진 외국 및 도시의 문화복지관광 복지정책 사례를 조사함.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문화복지관광 지원현황을 조사함
- 충남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충청남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연구 설명문과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기관 측의 동의를 얻어 설문조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임.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연구 후 설문을 실시함. 조사원이 협조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전달함. 설문조사 참여자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답을 직접 작성함. 설문지 작성의 소요시간은 약 15-20분으로 예상함.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즉시 수거하며 이후 설문지는 부호화하여 설문조사 참여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관리할 예정임. 설문지 문항으로는 문화복지관광 이용경험, 문화복지관광 욕구,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이 포함될 예정임

-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관련 예산, 정책, 인프라 등을 분석할 예정임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실태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등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복지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복지관광분야에서 정책기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문화복지관광분야 우수사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의 실천형 관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연구추진일정

- 연구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I -1〉 연구추진일정

구분	월 별 추 진 일 정			
	6	7	8	9
연구내용				
문헌조사				
실태조사(설문지 개발 및 설문조사)				
환경분석				
모델 개발				
자문회의				
원고 집필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문화복지관광

가. 문화관광의 개념

- 사전적 의미에서의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뤄낸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함(표준국어대사전). 이처럼 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며, 시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다르며 문화에 대한 정의도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문상정, 2016)
- 문화관광은 인문자원이 주를 이루며,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문화관광이란 “관광객이 타국이나 타지역의 유·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관광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박세중, 2014).
- 문화관광은 창조 관광의 일부로 여전히 관광객의 관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며 수단으로 작용됨. 즉, 관광객은 문화관광을 통해서 다른 나라 혹은 지역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그곳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화할 수 있음(정혜진·정승환·최영재, 2022). 문화관광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성찰적 능력을 보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확보시켜주어 그들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민웅기, 2012)
- 문화관광은 정보 및 사람의 이동성의 혁신적인 확대로 새로운 시간, 공간 속에 그 모습을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융합과 매우 유관적합성이 존재함. 이러한 디지털융합으로 인해 파생되는 새로운 현상들은 비단 문화관광 자원 소비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급 및 문화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임(변우희·이정열·변성희, 2013).
- 문화관광이 문화와 관광의 합성어인 탓에 개념이나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즉, 역사·유산자원을 주로 소비하는 관광 활동이 문화관광인지, 예술 등의 공연을 주로 소비하는 활동이 문화관광인지, 아니면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문화관광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이라 하면, 좁은 의미에서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관광, 문화유산관광 정도로 인식되어옴(강현철·류성진, 2014).

- 문화를 주제로 기획된 관광상품을 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상품은 그 지역 고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 양식 등의 문화를 상품화하여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공산품을 비롯한 관광 등 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됨(오창윤·조운설, 2015)

나. 복지관광의 개념

- 복지관광은 여행 및 관광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개념임. 복지관광은 일반적인 관광과는 조금 다른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관광은 여가와 휴식을 목적으로 하지만, 복지관광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고, 사회적 연대와 환경 보호 등을 강조함
- 복지관광의 목적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동이 제공되고 이러한 관광 활동은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문화 교류, 교육적 이점 등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복지관광은 지속 가능한 관광 혁신과 관광업계의 책임을 강조하고, 현지 사회와 협력하여 상생하는 방식을 추구함
- 복지관광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 되고 있으며, 관광업계에서는 이러한 니즈에 맞춰 다양한 복지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음
- 유럽에서 복지관광(social tourism)에 대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Hunziker이며(최수남, 2014), 복지관광은 경제적으로 약하거나 다른 불우한 사람들의 관광 활동 참여를 구체적으로 장려하는 관광임. 유럽 본토의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복지관광 인프라는 '휴가센터'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휴가센터는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는 새롭고 저렴하기 때문이었음(Minnaert, Maitland, & Mille, 2011).
- 복지관광의 혜택을 받는 자는 여행을 하고 싶지만, 특정 불이익으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임(Minnaert, 2014). 21세기 사회는 복지사회로 관광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로써 관광의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복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함(문상정, 2016).
- 국내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복지관광은 대체로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였음. 즉, 저소득

계층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었음(정진영, 2017).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광은 생활 보장 및 문화적 욕구까지를 포함하는 확대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관광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곤란이나 신체적 장애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관광 참여정책은 사회복지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김윤우, 2014)
- 장애인 외에도 우리나라는 초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노인의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관광수요의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관광지와 식당과 같은 관광 편의시설 등에 이들을 위한 표지판, 메뉴판, 안내시설과 같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우경진·윤동환, 2018)
- 여행상품을 기획 및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는 여행기업들에게 복지관광 사업은 소외된 시장으로 상품기획 및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고영길 등(2014)은 복지관광 시장은 여행사에 있어 소외된 시장이 아니며 블루오션 시장이라 주장함. 복지관광에 선진적인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 관광정책 심의회 답신에서 “모든 사람들은 여행을 할 권리가 있음. 여행에는 자연의 치유력이 겸비되어 있고, 여행의 자유는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것이다”라고 명기한 것을 계기로 수도권권의 대형여행사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JTB, 긴키 일본 투어리스트, 일본여행 등 유수의 여행사에서 복지관광 상품을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고영길 등(2014)의 연구에 의하면 복지관광객들은 우리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주거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음.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교통편을 이용하는 이동이 어려우므로 복지관광객들이 가까운 거리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행사의 경우 새로운 여행목적지가 상품기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관광 활동에 있어서 신체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여행목적지의 시설과 장비의 정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며, 여행사는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여행상품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김현(2003)의 연구에서는 복지관광을 경제, 신체, 시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관광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시설, 서비스 개발 및 비용보조 등을 실시함으로써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의 참뜻을 이해시켜 자활의 기회가 되는 정책(협의적 의미)이자 동시에 관광의 참여계층에 대한 관광 여건을 개선시켜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광의적 의미)이라 정의하였음
- 복지관광은 관광의 보편화 경향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체험 욕구를 만족시키고,

여가의 제약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관광이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장애인, 저소득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관광 활동과 같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게 됨(민웅기, 2012)

다. 문화복지관광의 조작적 정의

- 여러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문화관광은 정주지를 벗어나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복지관광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동이 제공되고 이러한 관광 활동은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문화 교류, 교육적 이점 등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의 문화복지관광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하여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의 유·무형의 문화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라 정의하고자 함

2. 문화복지관광의 대상 현황과 제도

가. 관광약자현황

1) 저소득층 현황

☐ 저소득층 현황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2021년 기준 총 2,359,672명이며,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는 2022년 기준 총 1,007,698명으로 조사됨

☐ 한부모 수급자 가구 현황(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모자가구는 총 149,888, 부자가구는 총 37,209, 조손가구는 1,307, 청소년 모자가구 1,845, 청소년 부자가구는 172가구로 나타났음
-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6세이며,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81.6%)이고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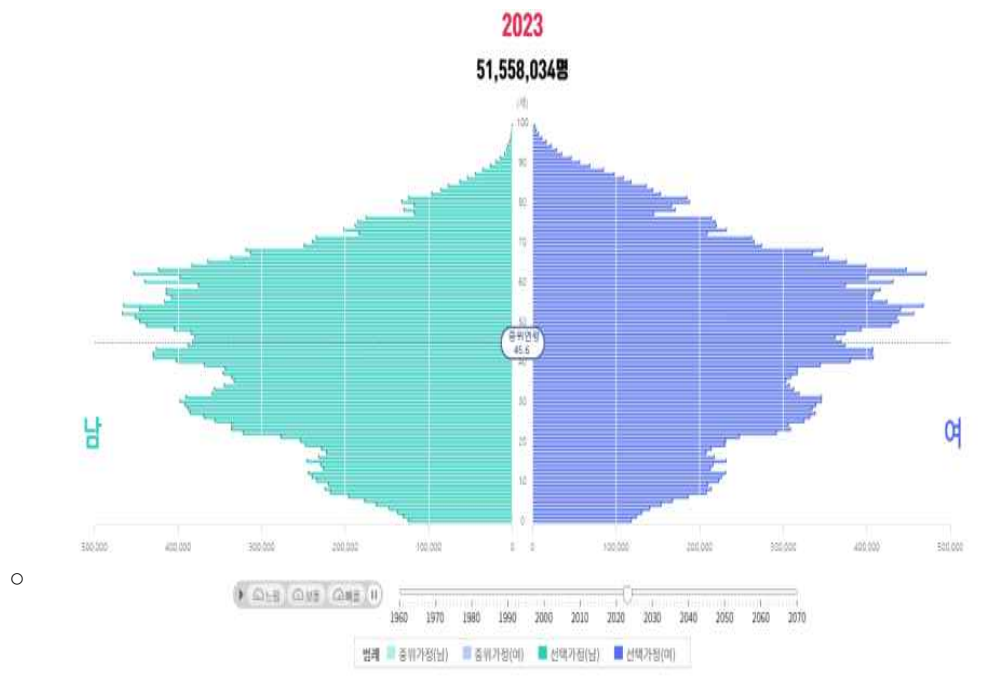
□ 한부모 가족 월 평균 소득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차상위 가족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3.2%, 100~200만원 미만 34.7%, 200~300만원 미만 34.2%, 300만원 이상 27.8%로 나타났으며, 평균 245.3만원으로 조사됨

2) 고령자 현황

□ 고령자 현황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는 70.5%, 유소년 인구는 11%로 나타남



[그림 II-1] 통계청 인구 상황판, 2023년 기준

- 2023년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고령 인구 비중은 18.43%이고 충청남도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5%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4.54%이며, 충청남도는 5.96%로 나타남



[그림 II-2] 통계청 2023년 고령 인구 비중, 2023년 기준



[그림 II-3] 통계청 2023년 초고령 인구 비중, 2023년 기준

□ 고령자의 연간 총소득 현황

- 2020년 기준 고령자의 연 총소득을 살펴보면 평균 3,026만원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65~69세는 3,886만원, 70~74세는 2,967만원, 75~79세는 2,568만원, 80~84세는 2,114만원, 85세 이상은 2,496만원으로 나타남. 고령자들이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은 전체 응답자 수 10,097명 중 식비가 46.6%, 주거 관련비 22.3%, 보건 의료비 10.9% 순으로 식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2년)

〈표Ⅱ-1〉 고령자 연간 총소득 현황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3,886만원	2,967만원	2,568만원	2,114만원	2,496만원

□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0,073명 가운데 동호회 활동이 4.7%, 친목 단체 44.1%, 정치사회단체가 1.2%로 친목 단체 활동 인원이 많으나 나머지 50%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2년)

〈표Ⅱ-2〉 고령자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동호회 활동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아무것도 하지 않음
4.7%	44.1%	1.2%	50%

□ 고령자의 정보화 기기 사용 현황

- 최근 키오스크 등 정보화 기기의 발달로 인력이 하는 업무를 정보화 기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불편함 정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체 응답자 5,792명 중 불편하다 35.7%, 매우 불편하다 24.7%, 보통이다 20.9% 순으로 나타남. 식당 키오스크 주문에서도 불편하다 36.1%, 매우 불편하다 28.1%, 보통이다 18.8% 순으로 나타남(통계청, 2022년)

〈표Ⅱ-3〉 고령자 정보화 기기 사용 현황

항목	매우 불편	불편하다	보통
대중교통 예매	24.7%	35.7%	20.9%
식당 키오스크	28.1%	36.1%	18.8%

□ 고령자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 현황

- 2020년 기준 고령자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이용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9,930명 중 정보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가 74.1%, 공공기관 및 마을, 마트 공지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의 이해 어려움이 63.5%,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의 어려움이 58.9%로 나타남(통계청, 2022년)

〈표Ⅱ-4〉 고령자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 현황

항목	비율
정보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어렵다	74.1%
공공기관 및 마을, 마트 공지사항 글씨가 작아 내용의 이해 어려움	63.5%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의 어려움	58.9%

3) 등록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 현황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총 2,652,860명이며, 남성 1,534,655명, 여성 1,118,205명임
- 충청남도의 등록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총 134,957명이며, 남성 77,329명, 여성 57,628명임
- 전체 등록장애인 인구 중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0~17세까지는 3%, 18세~29세 4.2%, 30~39세 4.8%, 40~49세 9.5%, 50~64세 28.7%, 65세 이상 49.9%로 장애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통계청, 2022년)

〈표Ⅱ-5〉 등록 장애인 연령 분포

0~17세	18~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3%	4.2%	4.8%	9.5%	28.7%	49.9%

□ 장애인의 사회 및 여가활동

-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들의 집 밖 활동 시 불편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불편하지 않다 39.3%, 약간 불편하다 35.3%, 매우 불편하다 13.7%, 전혀 불편하지 않다 11.8% 순으로 나타남.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40.8%, 외출 시 동반자 부재 29.6% 순으로 나타남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약간 만족 46.3%, 약간 불만족 41.2%, 매우 불만족 9.9%, 매우 만족은 2.6%로 나타남(통계청, 2022년)

나. 국내 문화복지관광 제도

1) 열린관광

-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으로 장애인들도 관광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을 의미하며, 어린아이부터 노인,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의미함
- 열린관광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열린관광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 약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며, 관광 약자를 고려한 관광 활동이나 서비스는 2015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기점으로 크게 발전하였음. 2025년 이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장애인만 아니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장애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 환경과 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논의되고, 이는 모든 이에게 관광향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음. 이처럼 미래관광 산업의 수요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됨

〈표Ⅱ-6〉 향후 관광약자 유형별 추계인구

연도	총인구수	관광약자수(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 반가족	어린이
			전체	중복제 외				
2020	51,871	15,129 (29.3%)	2,630	1,314	8,125	292	2,222	3,196
2021	51,822	15,372 (29.7%)	2,642	1,320	8,537	290	2,069	3,155
2022	51,846	15,663 (30.2%)	2,653	1,326	8,975	300	1,928	3,134
2023	51,868	16,006 (30.9%)	2,665	1,322	9,447	312	1,843	3,075
2024	51,888	16,356 (31.5%)	2,677	1,338	9,945	324	1,809	2,940
연평균 증감률	0.05%	1.93%	0.44%	0.44%	5.18%	2.63%	-5.01%	-2.06%

*열린관광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중복제외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동반 가족 장애인, 어린이 장애인

□ 사업 내용

- 관광지점별 시설 개선(주차장, 이용·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체험시설 등)과 열린 관광지의 정보 제공, 지자체 공무원, 관광지 종사자, 해설사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나눔 여행, 열린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열린 관광지 지역 분포

- 열린 관광지 조성은 2015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 5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12개소, 2019년 20개소, 2020년 23개소 약간의 감소와 증가를 토대로 2021년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Ⅱ-7〉 열린 관광지 지역 현황

지역	관광지
대구	비슬산 군립공원, 사문진 주막촌
경기	고양 행주산성, 행주 송악 커뮤니티센터, 행주산성 역사공원
강원	강릉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통일공원, 솔향 수목원
충북	충주 세계 무술원, 충주호 체험관광지, 중앙탑 사적공원
전북	군산 시간여행 마을, 경암동 철길마을, 익산 교도소 세트장, 고스락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향가 오토캠핑장
전남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 드라마 촬영장, 낙안읍성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사업 개요

- 2020년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를 살펴보면 2014년 시범사업을 시행, 2018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 사업대상을 중견기업,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여 참여 근로자 수는 12만 명으로 증가됨.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총 7,518개로 수도권 소재 참여 기업이 65.8%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음

□ 사업 참여 및 이용현황

- 참여기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43.2%, 소기업이 34.3%, 중기업 22.5%이며, 2019년 사업의 전체 적립금 320억 중 최종 사용액은 26,176백만원으로 81.8%의 소진율을 보였음. 적립금 사용 시기는 7월 휴가 기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8월, 1월 순으로 나타남
- 근로자 휴가지원 예약 사이트인 휴가샵에 입점한 업체 중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 제휴사는 여행전문관 28.8%, 인터파크투어 14.4%, 떠나요닷컴 10%, 호텔엔조이 9.6%였

으며, 숙박 예약이 65.9%를 차지하였음. 다음은 레저, 패키지여행 순으로 구매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방문한 지역은 제주도로 17.5%, 강원도 12.7%, 경기도 10.4%, 서울 9.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들의 근로자 휴가지지원제도 사업 참여 이유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에 참여한 기업의 이유를 살펴보면 여행 관련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들의 요구, 복지비용 절감 순으로 나타남. 또한, 복리증대로 직원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기업의 담당자 비율은 79.6%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참여 근로자의 조사 결과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한 근로자는 여행형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계획보다 양질의 여행을 했다고 하는 응답자는 83.8%, 계획보다 더 많은 지역을 여행했다고 하는 응답자는 76.2%,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응답자는 50.8% 순으로 나타남

3) 웰니스 관광

□ 웰니스 관광 개요

- 웰니스는 '웰빙(well-being)'에 '행복(happiness)'과 '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로, 웰니스 관광은 의료상의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과 달리 건강한 일반인이 여행을 통해 온천·명상·요가·건강식 등을 경험하며 정신적·사회적·신체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을 말함
- 웰니스 관광은 기대수명·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게 된 개념으로, 건강과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를 찾고 있는 추세임, 즉, 여행을 통해 색다른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자기 계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웰니스 관광의 저변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시사상식사전)
-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총 58개의 관광지가 웰니스 관광지로 추천되고 있으며, 뷰티와 스파, 한의학, 자연/숲 치유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충청남도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태안 팜카밀레, 에덴힐스 뷰티 & 힐링파크 등이 있음

□ 웰니스 관광 현황

- 한국관광공사의 18-19 추천 웰니스 관광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웰니스 관광지를 이용한 이용객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당일 체류 비율이 73.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이용객은 당일 체류 비율이 80.2%로 더욱 높게 나타남

- 웰니스 관광시설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은 우수한 시설과 장비 69.6%, 시설 위치와 접근성 45%, 수준 높은 서비스 42.5%, 프로그램 전문성 34.2% 순으로 나타남. 웰니스 시설 만족도에 대한 테마 별 분석 결과 자연/숲 치유 테마 시설이 전반적인 만족도 4.4점, 재방문의향 4.5점, 추천 의향 4.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임

4) 여행바우처

- 여행바우처 제도는 1991년 제도 도입 검토를 시작으로 2005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시행대상을 확대 하다가 2014년 01월에는 통합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었음
- 여행바우처 정책은 복지관광 정책의 구체적인 사회 정책적 조치의 성격을 지니며, 집행 차원에서 복지적 접근과 시장적 접근의 조화와 전달체계에서의 공급자 간 경쟁과 수요자 선택이라는 현대적 복지정책의 특징을 지님. 이러한 여행바우처 정책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여행바우처 정책은 ‘복지관광의 실현을 위해 바우처제도를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정부의 행동’으로 정의됨(이연택·김자영, 2013)

〈표 II-8〉 여행바우처 정책의 변화과정

시기	일시	정책변화	주요 내용
도입기	1999.1	제도도입 검토	관광비전21: 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 여행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1999.7	운영방안 검토	여행바우처제도 도입방안 연구 수행
	2000.1	시행계획 발표	문화관광부 2000년 업무계획에 반영
	2003	제도도입 제안	참여정부 18대 정책과제에서 논의
	2004.7	제도 시행계획 발표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에서 논의
	2004.12	운영방안 연구수행	여행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수행
	2005.2	추진계획 확정	문화관광부 저소득근로자 여행바우처 추진계획 발표
조정기	2005.3	1차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대상자 및 여행업체 신청접수 및 선정
	2005.6	정책추진 잠정보류	근로자 및 기업체의 저조한 참여율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국무조정실 정책품질 점검대상으로 분류
	2005.7	운영기준 변경 실시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운영기준 변경
	2005.8	2차 시범사업 추진	
	2006.8	정책 전면 중단	기획예산처에서 여행바우처 정책 문제 제기
	2010.1	정책 재시행 결정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국정 기조 채택으로 여행바우처 정책 재도입 검토
재시행기	2011.1	시행대상 확대	- 사업운영 주체 지자체로 확대, 예산확대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복지관광정책은 여행바우처로 일원화

*이연택·김자영(2013), 연구자료 발췌

- 여행바우처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여행바우처 사업의 경우, 여행바우처를 받

고도 사용하지 않는, 즉 여행바우처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음. 물론 사용되지 않은 여행바우처 지원금은 나중에 다시 사용하면 되므로, 지원금 대비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음. 그러나 수혜자 선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는 공적자금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여행바우처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자활/장애인/의료급여/한부모(조손)가정)이며, 지자체 바우처의 경우 그 외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계층을 포함함. 여행경비의 지원수준은 처음 10만 원으로 진행되다가 2010년 15만 원으로 상향조정(단, 개별여행 바우처 신청 시 가족을 1명 이상 동반하여 ‘가족여행’으로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2011년은 20만원, 2012년은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함) 하여 50~70% 정도의 자기부담률을 폐지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였음
- 여행바우처 사업의 예산 및 수혜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8억 원의 예산을 통해 4,600명의 수혜자를, 2010년 16억 원의 예산을 통해 5,413명의 수혜자를, 2011년에는 66억 원의 예산을 통해 49,332명의 수혜자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루어 냄. 2012년에는 소요 예산 66억 중 지자체별 개별과 단체 여행바우처 발급 이용 및 기획여행을 실시하여 수혜자 50,509명(개별 25,718명+단체 14,233명, 지자체 기획 10,558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약 58억 원(88.1%)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이용률로 보일 수 있으나 11.9%의 예산은 사용되지 못하였음
-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여행바우처 수혜자들의 중도 포기, 즉 이탈임 한국관광공사의 ‘여행바우처 사업 추진 결과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7월 여행바우처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11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개인별 여행바우처 이용률은 30% 정도로 매우 저조하였음. 이러한 이용률 저조 현상은 2010년 여행바우처에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2010년 7월경 여행바우처 대상자를 선정하였지만, 선정자들이 여행을 실시하지 않아 다시 동년 10월, 12월에 여행 기간을 연장한 바 있음. 이후 지속적으로 2011년 1~4월까지 여행 참여 독려를 위하여 미사용자에게 직접 전화 및 문자 안내, 여행상품 안내, 리플렛제작 및 DM 발송 등을 하였음. 이러한 바우처 미사용자, 즉, 중도 이탈자 문제로 2010년도 여행바우처 사업은 1차 선정(2010년 7월) 이후 2차(2010년 8월), 3차(2010년 9월), 4차(2010년 11월), 5차 선정(2010년 12월)을 거쳐서, 결국 6차 선정(2011년 4월)까지 진행되었음. 이렇게 여행바우처 선정을 6차에 걸쳐 실시한 이유는 선정자 중 다수의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특히 마지막 6차 선정에서는 기존 선정자에 대한 다각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진까지 목표 인원인 6,000명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신청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정 하였고, 선정방법은 후 순위자 16,000명에게 SMS 문자를 발송한 후 선

- 작순으로 선정하였음. 이러한 중도 이탈자 문제는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여행바우처 수혜자를 재선정할 경우, 재선정을 위한 행정처리, 통보, 선정, 안내 등 최초 선정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도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킴
 - 수혜자와 이탈자 간의 차이를 보인 유일한 특성은 ‘교육수준’의 문제로 나타남. 교육 연수는 여행바우처 대상자들의 지적 이해력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 여행바우처에 대한 이해력과 관련되어 있음. 먼저 여행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선정자들의 다수는 여행바우처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했던 사용처 및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익명의 여행바우처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여행바우처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지역민을 무분별하게 신청·선정한 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해당 선정자가 취소하는 사례도 보고된다고 함. 이 문제 역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해당 여행바우처 신청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신청자나 선정자의 교육수준은 여행바우처 정책 담당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통제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려되어서도 안 됨. 여행바우처 사업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이고 대부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이처럼 여행바우처 이탈의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원 금액, 사용 기간 및 방식의 개선이 요청됨. 여행바우처 선정자들은 지원 금액이 여행하기에 적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여행은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문화오락비 등 다차원적인 소비가 동반되며 여행을 가기 전부터 여행지, 그리고 귀가하면서까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소비재이기 때문임
 - 현재 여행바우처 지원금은 개별 바우처 15~20만원, 복지 시설단체 바우처 1인당 15만원으로 특히 개별 바우처 사용자들이 지원 금액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는 단체 여행의 경우 교통 및 숙박비 등에서 많은 부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며, 1박 이상 숙박을 한다면 현 바우처 지원비는 교통 및 숙박비, 최소한의 식음료비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금액임. 실제 201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숙박 여행 경험자들의 평균지출액이 252,257원, 당일 여행자들의 경우 75,738원으로 나타나 현재 바우처 지원 금액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는 당일 여행과 숙박 여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전년도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평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그리고 여행바우처 대상자들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여행을 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실제 여행바우처 사업은 대부분 5월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7월에 선정되어 다음 해 5월까지(예: 2010년 7월 23일~2011년 5월 31일) 실시됨. 1차 선정자의 경우 최대 10개

월 안에 여행을 갈 수 있지만, 2차 선정자와 그 이후 계속 추가선정이 된 대상자들에게는 바우처 사용 기간이 매우 짧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양산됨. 실제 2011년 4월에 선정된 6차 선정자들의 경우 바우처를 1개월 안에 사용해야 함. 따라서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가능한 연초에 한 후, 선정자들의 사용 시기(예를 들어 3, 6, 9, 12개월 이내)에 따라 조기에 바우처를 사용한 수혜자들에게 지원 금액 혹은 상품할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조기 사용자들의 여행 참여가 증가 될 것이고 사업의 집행률 및 추가선정에 따른 행정 비용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바우처 사용방식에 대한 제약에 기인한 이탈의 문제임. 여행바우처 사용을 포기하는 이유로 선정자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냄. 바우처 선정자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는 지정된 여행사의 상품이나 지정처에서만 사용해야 함.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렴해 일부 지자체단체들은 사용처를 기차표, 항공권, 유원지시설, 숙박 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선정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혜율을 높이고자 개선하고 있음. 이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여 여행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선정자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느끼는 제약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및 정보매체로의 전환이 요구됨. 여행바우처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를 겸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온라인 홍보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 내용 및 진행사항들이 여행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는 메이저급 신문(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외 9곳)과 각 지자체별 공문을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여행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홍보 방법은 효율성이 낮은 방법임. 고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400만 원 이상: 93.1%, 300~400만원 미만: 90.3%, 200~300만원 미만: 84.5%, 100~200만원 미만: 64.4%)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가구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인터넷 이용률은 22.8%로 매우 낮음. 게다가 학력 수준이 낮은 대상자일수록 인터넷 사용률이 학력 수준이 높은 대상자들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임. 이는 여행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컴퓨터를 보유해야 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온라인 매체 또는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간지를 통해서만 관련 정보 및 홍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음. 즉, 현행과 같이 인터넷 홍보를 통한 안내 제공에 초점을 둘 경우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바우처의 수혜자가 '저소득층 중 인터넷 이용자'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보다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취약계층은 정작 이들을 위한 정책의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여행바우처의 정보 채널 중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정보 채널을 찾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직접적인 정보 채널인 사회복지

사나 지역의 통/반/이장을 통한 정보 전달체계가 저소득층에게 보다 효율적일 것임. 이를 위해서는 통/반/이장을 여행바우처 전달체계의 핵심기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전국 보건소(보건소, 진료소) 그리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직 교사·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지역 여행바우처 홍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 이유는 해당 채널이 저소득층과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대상자별 차별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마을버스 등) 등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홍보하고, 필요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게시판이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여행바우처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을 것임. 더하여 임대아파트 및 서민 지역, 전국 공부방 협의회 및 야학협의회 등 대상자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좀 더 직접적인 사업 홍보도 가능할 것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복지정책을 목록화하고(여행바우처 제도 포함), 이를 종합하여 통합 홍보 및 정보 전달을 실시한다면 사회 취약계층에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여행바우처 사업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시점에서 상이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 비록 지자체의 추진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의 기간 등 절차가 통합되어 바우처 신청 및 여행 기간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면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인지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여행바우처 사업 기간 등을 통합하고, 홍보 메시지는 사업의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직관적인 홍보 콘텐츠로 저소득층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며 저소득층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상 신청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함. 이처럼 수혜자들의 감성적 욕구와 합리적 사고에 기반하여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여행바우처를 신청하게 한다면 이는 바우처사업의 이탈률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한숙영·박상곤·전민지, 2017)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개요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 *1인당 연간 11만 원, 예산 범위 내 신청자 발급
- 추진경과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복권기금 4억, 5개 주관처 운영)
-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홈페이지 포인트제(3000 포인트-3만원상당 → 2007년-2010년 5000 포인트-5만원 상당)
-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년 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2.17,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4/8.13)
-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광 이용권 통합 추진, 13. 2월, 3개 이용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13. 9월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및 시스템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농협은행>
-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14. 2. 24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14. 4~12월, 지역·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15. 2. 9 ~ '16. 1. 31
-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16. 2. 15 ~ '16.12. 31
-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 기획사업 폐지, 17년~18년 카드 발급 및 운영 협약 갱신(농협은행, 12. 5)
-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5만원 → 6만원) 하여 추진, 17. 2. 17 ~ 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7만원으로 증액(6만원 → 7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18.2.1~ 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8만원으로 증액(7만원 → 8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19.2.1~ 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19.3.1~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개시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9만원으로 증액(8만원 → 9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원으로 증액(9만원 → 10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21.1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21.2.3~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출시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1만원, 사업대상자 전체 발급(263만명)
- 2023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 12. 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
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 발급·이용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3. 2. 1(수) ~ 2023. 11. 30(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련 기사

-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상반기(1~6월)에 집중해서 이뤄짐. 문화누리카드가 신설되는가 하면, 공연·전시를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인 패스'도 시행되는 등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를 위한 제도 손질이 눈길을 끌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봄. 문화누리카드 발급 =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광 등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내년 2월부터 발급될 예정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됨. 문화·예술인 패스 =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문화·예술인 패스'는 대학생과 청년 또는 예술인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의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임.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됨. 2014년은 국민 문화권 원년 = 2014년은 문화기본법이 시행(3월)되는 첫 해임.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박물관·미술관 기부금품 접수 법적 근거 생긴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과 내년 3월 시행으로 기부금품 접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문화접대비, 접대비 10% 이내 전액 비용 인정 = 내국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 10%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예정임. 이로써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난립에 제동 = 내년 3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강원일보, 2013년 12월 30일).
- 예술위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미술관에서 문화누리카드 꿀팁 발굴단 '문화누리이즈' 발대식을 개최했음. 문화누리이즈(문화누리-is)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획되었음. 작년에 시행한 설문조사 응답 중, “가맹점 이용방법, 활용정보 등을 상세한 내용으로 제공해달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이용팁을 전달할 16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음. 광범위한 유형의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용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문화누리이즈는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음. 문화누리이즈는 8월부터 10월까지 약 3달간 실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직접 이용해보고, 이용정보를 글,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 장계환 예술확산본부 본부장은 “문화누리카드는 2006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임. 처음으로 이용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되어 기대가 큼. 직접 문화 활동을 하며 발굴한 이용 꿀팁과 즐거움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또한, 예술위는 지난 7월 16일까지 ‘문화누리카드 현장 접점 이용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예술위는 문화누리카드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농어촌 거주자 등의 발급 및 이용을 돕기 위해, 이용자와 접점에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공모를 고안함.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을 직접 대면 지원하는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는 기초지자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례를 모았음. 예술위는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제작하여, 사업담당자에게 배포해 효과적인 이용지원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확산할 예정이며, 온라인상에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림II-4] 아주경제 기사 사진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30801154607423>, 2023년 8월 01일)

□ 기초자치단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순위(상위 10개)

- 2020년 기초자치단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을 살펴보면 1위 강원도 인제군으로 99.8%의 이용률을 기록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보령시가 99.5%의 이용률을 기록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천군이 경상북도 상주시와 공동 5위로 이용률 98.9%의 이용률을 기록하였음

〈표Ⅱ-9〉 2020년 기초자치단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순위

순위	기초자치단체	이용률
1위	강원도 인제군	99.8%
2위	충청북도 옥천군	99.6%
3위	충청남도 보령시	99.5%
4위	전라남도 강진군	99.0%
5위	충청남도 서천군, 경상북도 상주시	98.9%
6위	전라북도 무주군	98.3%
7위	경기도 양주시	98.1%
8위	경상북도 영주시	97.9%
9위	경상남도 의령군, 경기도 김포시	97.7%
10위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김천시	97.0%

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제도

□ 추진배경과 목적 및 추진근거

- 추진배경: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
-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원내용과 지원비용

○ 지원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 계획 중심 여행 지원

○ 지원비용:

- 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일정(75,000원), 1박 2일 일정(150,000원), 2박 3일 일정(240,000원)
-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지원 유형과 내용

○ 힐링캠프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함. 수행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도우미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캠프
- 프로그램 계획 :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진행함. 필요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캠프 또는 수행기관 1박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 지원 방안 제공함
- 캠프 일정 및 참여인원 : 캠프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함.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함.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을 따름.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에는 추가배정 가능함

- 캠프 장소 : 캠프 장소는 수행기관의 자율적 선택으로 진행함. 가족단위 숙소제공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임

○ 테마여행

- 개요 :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함.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이 가능함. 수행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임
- 여행 계획 : 테마여행은 가족의 휴양을 중심으로 체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함.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테마여행시 발달장애인의 참여여부는 수행기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발달장애인 돌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여행 참여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수행기관 1박 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방안을 제공함.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함. 참여가족은 1가족 이상으로 구성함.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을 따름.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시 추가배정 가능(단, 지역센터 및 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함

○ 자율여행

- 개요 : 발달장애인 가족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고,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가족 여행을 지원하며,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 강화를 지원함. 자율여행은 가족중심 여행으로 가족의 욕구에 따라 체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함
- 여행 계획 : 자율여행은 신청하는 대상자 가족이 여행의 테마, 일정, 장소, 돌보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수행기관에서 이를 지원, 검토(안전 여부 등) 진행함. 자율여행 제공 시 수행기관에서는 가족의 여행계획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파악함. 여행 참여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수행기관 1박 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방안 제공함. 수행기관은 여행 참여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함.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함. 참여가족은 1가족 이상으로 구성함.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에 따름. 수행기관 판단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시 추가배정이 가능함(단, 지역센터 및 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함

체와 사전협의 필요). 자율여행에 참여하는 가족은 여행 시 지출사항에 대한 영수증을 필수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에 따라 자율여행에 대한 경비를 가족에게 지급함(사후정산).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시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함

7) 서울시 복지관광 제도

□ 관광 취약계층 여행 활동 지원

- ‘관광 취약계층 여행 활동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소규모 개별여행 선호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체여행이 아닌 개별여행으로 진행해오고 있음. 2017년부터 총 5,135명을 지원했으며, 매년 참여자 평균 만족도가 90점을 넘기는 등 선호도와 재신청률이 높은 사업임.
- 서울시는 당초 2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 취약계층 여행 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해 600명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3.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대상을 최대 1,100여명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세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활동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기 위함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2. 6. 8.(수)부터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 대상 참가자를 추가 모집해 1박 2일 숙박여행 상품을 제공함. 또한, 기존에는 서울 시내 여행 상품에 한정해 최대 2인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던 사항을 서울 및 지방 여행상품까지 포함해 최대 4인의 여행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였음
- 모집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관광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최대 1,000명(최소 470명),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0명을 모집함
- 지원내용은, 저소득층은 2인 기준 27만 원(주말 30만 원, 4인 기준 최대 60만 원) 한도, 장애인은 31만 원(주말 34만 원, 4인 기준 최대 66만 원) 한도 숙박여행 상품임
- 관광 취약계층 여행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임. 2022년에는 총 1,468명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관광업계에도 그간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음. 대상자는 희망에 따라 2~4인 및 서울 또는 지방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2023년에는 여행 지원 단가도 저소득층 2인 기준 3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만 원 증가하였고, 참여자의 여행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행상품 모집 기준도 관광호텔 4성급 이상으로 상향하였음

□ 관광약자 전동휠체어 및 휴대용 충전기 무료대여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광약자들의 행복한 나들이를 위해 11월 15일(월)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수단용(전동보장구) 휴대충전기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관광약자의 자유로운 여행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전동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기존 거치식 급속충전기 외에 휴대용 충전기를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였음
- 휴대용 충전기는 동 주민센터, 관광안내소, 장애인 복지시설 등 서울 전역의 관광지 연계 거점 138개소에 총 476대가 비치될 예정이며, 기존 서울 전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거치식 급속충전기 532대에 휴대용 충전기 476대가 추가로 제공되면, 이동 약자의 관광 활동도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충전기 대여점은 ‘스마트 서울맵’(<https://map.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서울맵’을 검색해 ‘전동보장구 휴대용 충전기 대여점’을 선택하면 대여점 현황과 가까운 관광지, 접근 가능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확인가능함
- 휴대용 충전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신분증을 맡기면, 1일 1회, 최대 5시간(또는 대여지점 운영시간 마감 전)까지 대여 가능하며, 리튬배터리 장착 휠체어는 충전이 불가함

□ 서울형 여행바우처사업

- 서울시는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활동을 지원함.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함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동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음
-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소득증빙서류 상 연소득금액이 3,9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포함됨
-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임

- 신청은 주민등록등·초본, 고용형태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단, 지원 규모가 한정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에 해당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함
- 선정된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적립금은 지정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국내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다. 해외 문화복지관광 제도

1) 일본 복지관광

-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복지관광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민관광이란 용어를 도입하면서 그 용어 속에 대중관광과 사회복지관광을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은 동양권의 국가로서는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성장단계에서는 연금기금(年金積立金:이하 연금기금으로 표기)을 활용한 복지정책 차원의 연금복지 환원사업을 펼쳐왔음. 특히 연금복지사업단은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가입자,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1년 11월에 설립된 이후 약 40년 동안 일본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복지의 발자취와 함께 사업을 전개하여 왔음.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정부 기관의 구조개혁에 따라 2001년 4월 1일부터는 연금자금 운용기금이라는 조직으로 개편되기에 이르렀음(정기용, 2005)
- 일본의 21세기 관광의 주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휴가의 실현, 관광 서비스 질의 향상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노력, 국제컨벤션 진흥, 국내 여행의 저렴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저렴하고 건전한 숙박휴양시설의 건설에 힘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업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종업원들에게 가족단위의 휴가 체재를 제공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기인하고 있음
- 일본 관광정책의 목표는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즉 고령자, 장애인, 방일외래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특별히 어느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대중을 위한 편리한 여행 환경 조성

을 통해 국민 대중의 여가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의 사회 복지관광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금전적 지원 같은 제도보다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건전한 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관광과 레크레이션이 해마다 활발해져 국민 생활에 불가피한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단순한 행락·휴양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의 접촉, 건강 유지 증진, 지역과의 교류 등으로 다양함.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야외 레크레이션 시설과 숙박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공적 관광-레크레이션 지구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공적관광·레크레이션 지구를 ‘국민휴가촌’을 비롯한 17개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제도적인 지원정책으로서 공적 숙박 시설, 음식시설 정비에 보조금 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에 들어 공공숙박 시설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시설 노후화, 서비스 저하, 민간시설과의 경쟁 등 여러 가지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의해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진정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때문이며, 반면 ‘국민휴가촌’은 국민숙사 등의 여타 공적숙박 시설과는 달리 해마다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 국민휴가촌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국민휴가촌은 국민숙사와 비교하여 입지 조건이 좋으며, 각종 관광 활동 등 특히 놀이시설이 휴가촌 안에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현재 일본 사회복지관광의 가장 큰 과제는 시설 및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즐거움 제공이라 할 수 있음
- 일부 국민휴가촌에서는 비수기인 겨울에 스키학교와 눈 캠핑 교실을 개최하고, 9월쯤에는 경로일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대폭 할인 우대하고 ‘실버플랜’(silver plan)을 실시하기도 함
- 최근에는 공적 숙박 시설과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여행 지원 등과 같은 개별지원 측면에서도 복지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즉, 일본의 사회복지관광은 스위스와 같은 제도형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시도된 시설형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시설형과 제도형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회복지관광이 완성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노영순, 2011)

2) 프랑스 복지관광

- 프랑스의 관광지(도시, 지역, 등)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Tourisme & handicap(관광& 장애)’ 및 ‘Destination

pour tous(모든 사람을 위한 관광지)’ 라벨을 발급하여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랑스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관광 & 장애’ 라벨은 관광지 및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부여하는 라벨임. 이 라벨은 네 가지 종류의 장애(청각, 정신, 신체, 시각)에 대한 적절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입구에 해당 로고가 부착되어 있음
- 2003년 탄생한 ‘관광 & 장애’ 라벨은 정부 관광 담당부처, 관광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 등 여러 관계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임
- 이 라벨은 숙소, 관광 정보, 레저, 음식 투어, 이 다섯 가지 분류에 속하는 시설에 부여될 수 있음. ‘관광 & 장애’ 라벨을 통해 프랑스 전국 관광서비스 품질의 균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힘을 얻고 있음. 오늘날, 다양한 관광지에서 이 라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Destination pour tous(모든 사람을 위한 관광지) 이 라벨은 장애를 가진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관광지나 액티비티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이동의 편리성까지 고려하여 부여됨. 한 번 라벨을 획득하면 5년간 이를 유지할 수 있음.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네 종류의 장애(청각, 정신, 신체, 시각) 중 최소 두 종류의 장애를 위한 관광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나머지 장애를 위한 상품도 지속 개발하며 모두를 위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2014년 정신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을 위한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라벨을 획득한 보르도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오 드 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의 아미앙(Amiens)과 옥시타니(Occitanie) 지방 지중해 근처에 위치한 발라뤽 레 방(Balaruc-les-Bains)이 같은 라벨을 획득하였음
- 프랑스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 따른 경기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2주간의 연속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바캉스법'을 제정하고, 1950년대 말에는 모든 국민에게 휴가기회를 부여하려는 사회복지 관광정책을 추진하면서 범국가적인 휴가문화가 발전되었음. 국민의 휴가 활성화는 휴가여행 및 레저스포츠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음.
-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에 의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개월 근무 당 2.5일의 휴가가 추가됨. 1년 근무 시에는 최소 4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대부분 5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1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24일로 제한되며, 장기휴가는 반드시 바캉스 기간(5월 1일~10월 31일)을 포함하여 사용해야 함. 또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가특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 가령 21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로서 동거 가족 중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어린이

1명당 2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함(이성태, 2017).

□ 체크바캉스 제도

-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는 1982년에 국민의 자국 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게 됨. 이 체크바캉스의 발행 및 운영기관은 국립바캉스상품권사무소(ANCV: Agence Nationale pour le Cheque-Vacances; The National Agency for Holiday Vouchers)로서 산업·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설립되었음
- 이 단체는 노동조합과 고용주, 여행 바우처 유통인, 관광업계의 27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체크바캉스의 발행 수수료 1%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체크바캉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50%, 개인이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1년을 기간으로 매달 적립을 하되, 4달 이상을 적립해야만 체크바캉스를 신청할 수 있음(노영순, 2011)

□ 가족휴가촌

- 프랑스의 가족휴가촌(이하 VVF)은 가족 단위의 휴가객이 식사, 욕아, 스포츠, 오락, 문화 활동 등을 집합적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서비스 시설을 갖춘 장기체류형 휴양단지로서 1958년에 설립된 「가족휴가촌협회」에 의해 개발·운영되고 있음
- VVF의 기본목표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직업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휴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지역관광 및 지역 경제, 사회·문화적 활동을 개발하는 목표를 추가로 하고 있음. 따라서 VVF의 고객층은 매우 다양함. VVF의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전적 휴가촌(village de vacances classiques en pension complete)과 숙소촌(villages de gites)을 들 수 있음. 또한, 대부분 가족휴가촌은 테니스 코트, 승마장, 낚시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실내 오락 시설의 중심으로서 큰 홀을 두고 있음
- 기존의 휴가촌은 각 아파트먼트가 빌딩 단위로 집합되어 있고 부엌이 없어 중앙건물의 레스토랑에서 3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숙소촌은 부엌을 갖춘 단독형 아파트먼트로 구성되어 있어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VVF는 개발 시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토지의 무상매입과 국영은행의 50% 지원 및 기타 지원을 받으며, 개발 후 자본금을 냈던 국가·단체·개인에 사용우선권을 제공함. 그리고 개발 및 지원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결성되어 여기서 운영 및 제반 관리 사항을 결정하게 됨
- VVF는 사회복지관광의 구현을 위한 장소로서 저소득층의 휴가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특히 VVF이용객은 노동자계층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바캉스 시즌 이외에는 노인 단체와 신체장애인 및 퇴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또한, 휴가를 못가는 모든 사람들

을 위해 VVF는 열린 휴가재단을 창설하였음. 가족휴가촌은 최저 체재 기간이 1주일이며, 최소 조건 등 규정이 까다로운 반면에, 요금은 매우 저렴함. 가족휴가촌은 특히 가계소득 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저소득가족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음. 소득별 요금은 현재 두 단계로 간략화 되었는데, 외국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함.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족휴가촌의 사회복지관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Marie-Eudes Lauriot Prevost Eco Touristique, 2002).

3) 스위스 복지관광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가처분소득 증가, 여가시간 증대, 교통수단의 발달 및 도로의 발달, 소비행태 변화 등의 사회변화로 관광의 주체가 일반 대중으로 확대됨. 하지만 모든 국민이 관광에 참여하는 대중관광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관광에 참여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국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스위스는 사회단체와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1939년 사회복지관광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스위스 여행금고(REKA:Die Genossenschaft Schweizer Reisekasse)를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관광과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39년에 설립하였음.
- REKA는 비영리조직(NPO,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국가 또는 특정 이해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REKA 조직 및 서비스

- REKA의 대표적인 기능은 REKA 지불수단을 이용, 휴가비 절약수단 제공, 저렴한 휴가여행에 관한 정보 제공, 저렴한 숙박 시설 개발 및 운영, 저소득가족 초청여행 실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 REKA지불수단(REKA payment instrument)은 REKA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자 비즈니스 임.
-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스위스인이 REKA 지불수단(check, card 등)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음.
- REKA지불수단(REKA payment instrument)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REKA 수표인데, 이는 복지적 목적의 바우처(voucher)라기 보다는 일종의 여행자 수표의 개념을 근로자나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여행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다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음으로써 여행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 들어 REKA 전자화폐의 보급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구매자는 액면가 100 스위스 프랑의 수표를 평균 84 프랑에 구입, 이 수표로 100프랑에 해당하는 관광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음. 이

를 구입한 사람은 철도승차권, 호텔, 레스토랑,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REKA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 REKA 수표의 94%가 스위스 국내 관광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수표의 형태로 예치된 휴가관광자금은 특별한 목적에 책정되어 관광 부가가치사슬에서의 지출을 장려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악지역, 변두리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REKA의 상품 및 서비스는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는데, 가령 REKA money의 60.9%는 대중교통 여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REKA Rail을 발권하고 있으며, REKA Rail은 모든 종류의 철도교통 이용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임
- My One이라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 정도의 할인된 금액으로 REKA Rail을 구매할 수 있음
- 관광에 대한 폭넓은 정보파악이 부족한 휴가비를 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고 각종 휴가여행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휴가센터, 휴가아파트와 같은 저렴한 숙박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음
- REKA의 휴가시설들은 저소득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10~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음
- REKA 휴가촌은 저소득층 휴가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 Hasliberg는 2007년 8만 명이 체류하면서 약 4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을 여행객들이 소비하고 갔으며, 산악철도, 스키학교, 각종 상업 시설 등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저소득 가족 초청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가여행경비를 전혀 조달할 수 없는 극빈자를 위하여 매년 일정 가족을 초청하고 무료 휴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REKA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REKA의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계획하는 공급과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노영순, 2011).

□ REKA의 재정 운영

- REKA는 REKA 지불수단(REKA 수표 및 카드) 및 숙박 시설(REKA holiday apartment) 운영수익, 민간기부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휴가지원계획에 매년 1200만 CHF(1400만 달러, 150억 원), 무료휴가에 250만 CHF, Reka 할인에 800만 CHF 사용하고 있으며, 200만 CHF 이상의 기부금이 가족휴가기금으로 유입되고 있음(노영순, 2011).

4) 영국 복지관광

- 영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20만 가정(약 700만 명의 어린이와 부모)이 빈곤으로 인해

매년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영국 국가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세 가정에 하나 꼴로 가정을 벗어나서 1주일도 채 휴가를 즐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범유럽단체의 사회복지관광 개발에 대하여 영국은 이러한 이슈들을 모두를 위한 관광협회와 최근의 미래지향적인 관광(DCMS, 1999)이란 정부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정책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

□ 복지관광을 위한 국가 자선기관

- 영국의 대표적인 복지관광 단체는 민간자선단체인 The Family Holiday Association임.
- 이 단체는 휴식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휴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국가 자선기관(national charity)임. 이 민간자선단체는 가족들에게 휴가비용을 보조해주는 일을 주로 하며, 뜻을 공유하는 제반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음. 재원은 주로 기부(donation)에 의해 확보되는데, 기업기부가 전체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개인들의 기부 또한 31%에 이르고 있음

□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 복지관광을 위해 특별히 건설된 숙박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침실·조식을 제공해 주는 민박들(bed & breakfast establishments)과 Butlins 휴가캠프 등 그다지 비싸지 않은 영국만의 독특한 숙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이 숙박 시설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족 중심의 숙박 시설임. 자선단체 Jumbulance Trust에서는 점블런스(Jumbulance)라고 알려져 있는 특수여행수단의 개발을 후원하고 주로 민간 후원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은 이색적으로 간병인을 위한 휴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며, 간병인을 위한 휴가바우처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carer)을 대상으로 시청 및 구청(local council)에서 발급하는 휴가 지원금 바우처임. 바우처는 간병인 본인의 국내외 휴가를 위한 경비, 간병인이 휴가를 가는 동안 다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 간병인이 휴가를 가는 동안 간병을 위한 추가 경비로 이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관광패스 제도(Travel passes for People with a Disability)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운수법(Transport Act 2000)에 의거 실행되고 있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센트로(Centro)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Ring & Ride)은 West Midlands County의 장애인(시각장애인 포함) 거주자들에게 무료 이용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노영순, 2011)

5) 미국 복지관광

□ 장애인 여행객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의 노력

- 1976년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인 Society for Accessible Travel and Hospitality(SATH)는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여행기회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들 및 숙박업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수많은 여행/관광 사업체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여행·관광업자들에게 장애인 여행객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대감을 제공할 수있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좋은 예로서 Vacation.com 은 북미 전역 약 5천개 이상의 여행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여가여행 마케팅 업체로서 일반 소비자들과 숙련된 여행업자들과의 교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른 예로서 SATH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연구소(Travel Institute)는 장애인 여행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여행·관광업자들은 장애인 여행객들의 특별한 요구들을 더욱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비영리 단체인 SATH는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제크루즈 협회(CLIA: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와의 연계를 통하여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여행객들에게 미국 장애인복지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항공운송접근법(ACAA: Air Carriers Access Act)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SATH에 의하면, 장애인 여행객들은 자비나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과 동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 내 여행/관광업체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좋은 사업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시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년)

□ 장애인 여행객들을 위한 온라인 여행사의 사례

-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여행·관광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온라인 여행사인 아마데우스(www.amadeus.com)는 이동이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여행객들을 위한 온라인 여행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음
- 온라인 여행사인 아마데우스가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케팅 서비스는 더 편리하고 질 높은 여행 예약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권 예약 시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휠체어 대여 및 공항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마데우스는 자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행사, 아마데우스는 여행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

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새롭게 개발된 ‘e-Travel Management’를 통해서 일반 여행객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여행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음

- 장애인 여행객들의 다양한 여행업체 선택과 여행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DisabledTravelers.com은 장애인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들, 장애인 여행업체들, 크루즈와 모험관광을 포함하는 다양한 여행 상품들 및 장애인 여행객들의 위한 항공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여행업체인 Connie George Travel Associates는 맹인견을 동반하는 여행을 포함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여행객들의 여행일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의 산악관광과 휠체어 관광을 소개하고 있음
- 콜로라도주 지역 특성에 맞추어 휠체어, 스쿠터 등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장애인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구급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위의 크루즈관광을 위한 맹인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장애인 여행객들을 위하여 장애인 여행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으며, 여행 시 미국 운수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을 설명해 주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년)

3.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현황과 제도

가. 충청남도 관광약자 현황

1) 저소득층 현황

- 충청남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총 39,469명이며, 시군별로 천안시가 8,6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룡시가 651명으로 가장 적었음.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84,802명으로 나타남

2) 고령자 현황

- 65세 이상 고령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총 608,052명으로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05,4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룡시가 7,744명으로 가장 적었음

3) 등록장애인 현황

- 충청남도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34,957명으로 전국 지방광역지역 중 8번째이며, 충청남도 시군구를 살펴보면 아산시가 16,319명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가 1,664명으로 가장 적었음

나.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제도

□ 충청남도 시/군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19세까지는 총 6,484,638천원, 20세~29세는 2,182,704천원, 30세~39세는 3,008,350천원, 40세~49세는 5,356,341천원, 50세~59세는 4,949,144천원 60세 이상은 12,887,598천원을 사용하였음
-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사용금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0세 이상이 제일 많이 사용하였으며, 20대가 가장 적게 사용하였음
- 년도별 총 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2,031,039천원, 2015년 2,281,967천원, 2016년 2,468,203천원, 2017년 3,208,142천원, 2018년 3,963,853천원, 2019년 4,618,199천원, 2020년 5,406,429천원, 2021년 6,563,596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4,327,347천원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II-5〉 충청남도 문화누리카드 사용현황

- 각 시/군구별 연도별 문화누리카드 사용금액은 아래의 도표와 같음

〈표Ⅱ-10〉 2014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16,693	1,262	5,634	14,188	11,928	17,243
서산시	35,164	3,701	10,875	23,809	18,258	36,166
당진시	20,848	2,693	8,489	17,853	12,537	18,302
아산시	59,660	5,537	19,770	52,443	32,805	68,340
천안시	98,390	11,980	33,647	85,461	51,415	73,111
예산군	22,424	1,962	6,098	15,447	16,660	37,094
홍성군	30,533	2,626	10,498	25,467	18,849	31,197
청양군	6,658	1,893	2,912	6,417	4,621	14,049
공주시	41,575	5,123	16,438	34,291	27,312	36,769
보령시	37,563	2,301	18,065	37,156	31,170	57,773
부여군	23,687	3,069	8,235	16,928	15,166	33,004
서천군	17,294	1,205	5,131	12,814	12,771	48,601
논산시	56,141	6,201	15,089	42,150	40,110	56,675
계룡시	12,673	1,284	3,675	8,395	3,749	9,444
금산군	38,772	1,965	7,487	18,481	14,951	26,749

〈표Ⅱ-11〉 201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15,622	31,644	31,632	79,228	53,855	75,955
서산시	44,581	11,427	13,362	22,997	18,950	40,101
당진시	22,231	5,784	7,040	14,024	9,157	14,570
아산시	75,510	16,953	23,077	50,616	30,494	65,451
천안시	122,768	31,644	31,632	79,228	53,855	75,955
예산군	23,646	5,201	5,839	14,597	15,282	49,942
홍성군	30,657	6,761	10,124	19,807	15,672	39,044
청양군	7,009	2,024	2,897	5,343	4,860	10,879
공주시	40,873	10,590	12,028	25,386	22,596	33,626
보령시	41,920	8,309	15,549	35,018	29,157	56,545
부여군	29,050	5,258	6,656	14,605	13,689	32,896
서천군	14,861	3,171	3,863	8,723	9,684	37,032
논산시	57,561	12,385	12,649	31,575	35,534	52,326
계룡시	13,180	2,539	2,993	7,618	4,057	6,492
금산군	29,055	4,564	4,972	13,879	13,105	27,471

〈표 II-12〉 2016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18,518	4,240	5,196	12,408	11,884	34,590
서산시	40,228	11,353	13,266	22,978	22,324	46,572
당진시	25,172	6,658	9,968	17,851	12,105	25,972
아산시	73,201	20,228	23,452	55,005	34,672	79,288
천안시	124,476	39,277	33,229	91,054	62,425	91,261
예산군	20,253	6,852	6,963	15,817	15,833	53,833
홍성군	30,077	7,708	10,417	23,566	21,628	56,700
청양군	9,758	2,583	2,440	6,964	6,776	17,516
공주시	48,204	16,542	13,260	30,868	30,159	59,339
보령시	41,796	9,041	16,292	37,049	30,962	72,847
부여군	22,885	5,868	6,443	16,895	16,693	55,932
서천군	18,352	4,200	5,556	11,532	12,807	67,731
논산시	67,732	17,628	19,200	41,558	44,925	88,719
계룡시	11,728	3,090	2,611	6,926	4,512	7,838
금산군	25,255	4,759	5,057	15,496	16,721	48,660

〈표 II-13〉 2017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21,214	6,057	7,016	14,703	16,998	50,566
서산시	39,618	12,838	16,849	30,399	27,647	72,425
당진시	30,509	9,336	12,166	23,343	20,531	49,749
아산시	82,022	29,322	32,261	68,997	49,403	114,100
천안시	146,307	57,810	45,581	122,271	89,152	138,661
예산군	22,716	9,292	6,634	21,099	21,040	74,791
홍성군	33,437	9,541	13,606	28,378	26,175	73,671
청양군	8,869	3,241	2,798	7,551	9,013	23,628
공주시	46,772	21,277	15,446	38,757	40,523	85,512
보령시	41,251	10,762	19,852	44,707	40,105	98,455
부여군	31,398	9,261	10,102	22,161	24,034	84,309
서천군	18,722	4,918	6,477	13,988	18,524	97,172
논산시	69,620	23,831	24,238	53,299	60,568	119,968
계룡시	11,171	3,935	2,107	7,605	5,385	12,063
금산군	26,845	5,888	5,918	17,702	21,095	59,088

〈표 II-14〉 2018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23,605	8,223	8,737	18,634	20,880	68,301
서산시	44,613	14,570	20,000	38,045	32,146	90,585
당진시	35,341	11,436	16,333	29,547	25,715	64,962
아산시	98,218	40,159	44,135	84,492	66,840	169,400
천안시	170,552	68,270	56,123	141,244	111,672	194,227
예산군	27,832	11,190	8,798	26,852	27,215	94,751
홍성군	38,927	12,304	16,805	34,568	35,868	100,401
청양군	10,246	4,507	5,435	7,827	10,598	32,387
공주시	49,265	25,234	20,245	43,451	50,808	106,499
보령시	38,862	13,218	21,431	49,501	49,261	117,677
부여군	37,910	12,005	12,192	28,831	30,563	120,020
서천군	22,686	5,482	7,442	16,973	22,027	116,641
논산시	69,261	23,593	25,390	56,219	69,654	152,958
계룡시	12,507	5,380	3,002	8,156	7,459	14,578
금산군	34,026	7,896	8,551	21,231	24,917	77,335

〈표 II-15〉 2019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22,751	10,721	9,855	24,519	23,759	79,871
서산시	45,563	18,225	20,783	41,232	38,096	102,866
당진시	39,937	14,105	16,956	38,619	31,385	81,196
아산시	106,559	43,734	49,164	93,414	80,769	214,205
천안시	180,770	88,085	74,060	170,952	134,622	269,690
예산군	29,597	13,296	8,514	27,609	28,287	107,386
홍성군	39,235	13,216	16,206	37,800	36,905	111,770
청양군	9,856	4,103	6,978	12,271	13,324	41,468
공주시	52,741	28,693	24,301	52,125	59,583	140,558
보령시	40,967	15,397	23,290	53,067	52,172	139,244
부여군	39,878	12,184	14,871	33,411	37,813	148,660
서천군	21,616	7,018	9,412	20,674	24,643	135,925
논산시	68,661	26,084	31,993	59,516	77,693	188,656
계룡시	13,191	5,800	3,178	9,302	7,514	18,949
금산군	34,967	10,751	10,254	23,745	28,510	86,908

〈표 II-16〉 20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23,022	12,025	9,745	26,594	27,433	92,646
서산시	46,387	19,805	25,158	50,266	44,055	136,668
당진시	41,869	17,016	20,391	45,123	36,236	94,764
아산시	106,145	55,445	54,400	111,035	96,127	263,950
천안시	194,031	114,643	100,456	203,150	170,742	358,086
예산군	29,744	16,008	12,708	32,200	34,064	126,696
홍성군	43,501	15,720	16,418	43,315	43,028	128,024
청양군	8,650	4,819	5,761	14,303	13,273	41,812
공주시	51,661	31,391	23,220	56,842	68,063	163,822
보령시	43,636	17,514	26,369	62,126	63,650	178,058
부여군	43,532	13,994	15,426	35,000	41,656	179,529
서천군	22,598	8,784	8,229	21,620	27,276	157,310
논산시	79,270	29,801	34,763	64,351	90,275	238,917
계룡시	11,544	6,115	4,213	11,474	7,582	23,423
금산군	35,294	11,229	10,235	24,188	30,906	104,086

〈표 II-17〉 2021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30,658	13,049	11,230	30,706	34,002	122,418
서산시	53,093	23,429	26,709	61,221	50,480	175,842
당진시	50,464	25,132	21,421	54,531	48,258	127,839
아산시	128,262	68,122	65,493	131,112	125,637	363,074
천안시	208,067	144,035	111,089	236,760	209,586	470,695
예산군	33,402	16,549	13,547	36,292	40,374	157,940
홍성군	46,407	20,982	16,758	45,750	50,929	160,190
청양군	12,231	5,797	6,369	16,328	12,856	51,132
공주시	54,344	36,745	27,466	63,085	77,619	200,862
보령시	52,967	23,810	29,010	67,120	73,994	226,528
부여군	46,202	15,893	17,945	39,815	48,035	216,251
서천군	26,058	10,596	10,929	25,221	31,222	199,668
논산시	85,551	36,701	34,057	72,789	100,786	290,692
계룡시	12,611	7,431	5,889	13,626	10,044	31,372
금산군	38,621	14,096	10,548	28,245	40,211	142,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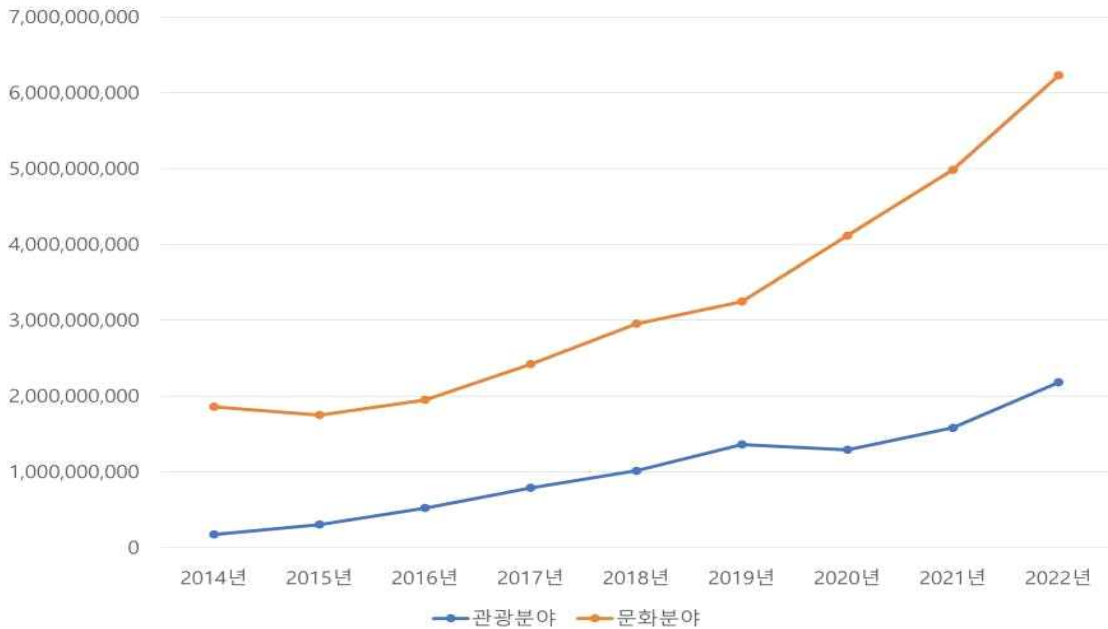
〈표 II-18〉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역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태안군	33,676	5,336	28,339	12,565	12,473	33,205
서산시	68,171	13,437	54,734	27,669	33,023	77,550
당진시	62,528	9,364	53,164	32,868	27,450	64,797
아산시	160,535	29,458	131,076	87,100	77,705	172,376
천안시	254,459	44,362	210,097	185,006	132,038	288,927
예산군	41,216	7,428	33,788	19,912	19,321	44,448
홍성군	53,756	7,805	45,950	27,354	21,114	53,903
청양군	16,805	3,177	13,627	6,325	6,730	21,165
공주시	66,846	10,980	55,865	45,715	32,201	72,832
보령시	68,594	11,250	57,344	28,312	34,587	77,447
부여군	58,269	11,095	47,174	17,046	20,915	52,723
서천군	29,802	4,444	25,357	15,459	13,835	29,131
논산시	93,008	14,991	78,017	42,669	33,430	83,070
계룡시	19,177	3,799	15,377	9,292	7,381	20,960
금산군	43,129	5,831	37,298	16,163	10,976	38,244

□ 충청남도 문화누리카드 문화 및 관광 분야 이용 현황

- 충청남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사람들 중 관광분야와 문화분야의 2014년부터 2022년 까지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관광분야는 9,212,391,218원을 사용하였고 문화분야는 29,502,097,426원을 사용하여 문화분야에 많이 사용하였음



〈그림 II-6〉 문화복지누리 분야별 이용현황

○ 시/군별 연도별 및 분야별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Ⅱ-19〉 2014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6,658,090	60,292,205
서산시	4,956,994	123,019,057
당진시	7,411,750	73,311,851
아산시	24,860,580	213,698,374
천안시	24,676,956	329,330,438
예산군	10,369,048	89,318,694
홍성군	21,900,610	97,273,210
청양군	1,124,600	35,429,090
공주시	7,521,890	153,989,427
보령시	16,673,140	167,357,070
부여군	6,655,135	93,438,594
서천군	5,258,030	92,561,125
논산시	19,284,520	197,084,671
계룡시	4,640,620	34,581,455
금산군	11,842,890	96,564,973

〈표Ⅱ-20〉 2015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6,297,800	54,337,795
서산시	10,121,474	141,298,268
당진시	5,559,485	67,250,133
아산시	34,840,677	227,263,076
천안시	40,729,834	354,355,543
예산군	32,074,682	82,434,860
홍성군	47,005,730	75,061,713
청양군	2,391,200	30,623,742
공주시	12,040,960	133,062,135
보령시	42,057,922	144,442,224
부여군	11,583,800	90,574,153
서천군	13,613,300	63,723,720
논산시	24,816,160	177,216,861
계룡시	4,569,280	32,311,289
금산군	17,419,780	75,629,190

〈표Ⅱ-21〉 2016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19,372,120	67,468,330
서산시	22,331,570	134,391,574
당진시	14,905,370	82,824,024
아산시	48,280,840	237,565,939
천안시	61,668,464	380,056,164
예산군	45,982,260	73,571,363
홍성군	68,131,150	81,967,467
청양군	7,879,020	38,160,127
공주시	40,056,460	158,317,161
보령시	45,315,440	162,672,891
부여군	28,995,980	98,722,495
서천군	35,910,150	84,271,437
논산시	47,787,715	231,877,256
계룡시	5,001,000	31,703,824
금산군	30,588,920	85,362,000

〈표Ⅱ-22〉 2017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33,410,410	83,146,221
서산시	41,298,384	158,479,875
당진시	28,929,560	116,708,915
아산시	75,884,386	300,223,653
천안시	93,746,398	506,038,548
예산군	54,665,255	100,909,977
홍성군	89,011,540	95,798,872
청양군	11,783,540	43,319,615
공주시	68,586,040	179,703,275
보령시	64,274,480	190,860,196
부여군	50,047,300	131,221,473
서천군	46,949,750	112,853,815
논산시	79,601,870	271,923,892
계룡시	8,795,300	33,473,776
금산군	41,320,260	95,218,553

〈표Ⅱ-23〉 2018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43,409,050	104,973,625
서산시	54,478,975	185,484,188
당진시	44,929,020	138,407,620
아산시	135,401,398	367,844,524
천안시	133,369,460	608,721,001
예산군	65,738,478	130,902,114
홍성군	115,036,352	123,841,146
청양군	14,977,560	56,025,660
공주시	86,113,550	209,391,967
보령시	69,471,830	220,481,123
부여군	55,143,552	186,379,094
서천군	53,885,270	137,369,216
논산시	76,175,730	320,902,165
계룡시	11,317,880	39,767,178
금산군	52,676,655	121,283,369

〈표Ⅱ-24〉 2019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83,389,949	86,929,607
서산시	81,937,577	181,995,696
당진시	77,621,940	144,480,643
아산시	155,683,303	431,414,365
천안시	206,309,996	711,704,712
예산군	81,885,482	132,034,566
홍성군	112,378,060	142,688,696
청양군	25,388,070	62,468,115
공주시	96,881,760	260,936,188
보령시	93,315,460	229,010,265
부여군	89,492,773	197,244,321
서천군	69,896,570	144,915,286
논산시	99,579,430	352,810,743
계룡시	13,902,368	44,035,199
금산군	72,732,242	122,405,579

〈표Ⅱ-25〉 2020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48,490,887	142,977,278
서산시	73,777,771	248,563,314
당진시	58,561,445	196,841,641
아산시	180,950,423	506,153,919
천안시	208,067,745	933,042,611
예산군	69,939,457	181,483,871
홍성군	128,493,882	161,515,640
청양군	25,309,930	63,311,282
공주시	102,561,460	292,439,421
보령시	74,370,650	316,985,377
부여군	66,989,860	262,150,454
서천군	90,064,570	155,754,971
논산시	88,839,587	448,540,609
계룡시	18,027,845	46,326,132
금산군	56,261,220	159,678,996

〈표Ⅱ-26〉 2021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59,406,543	182,659,169
서산시	94,447,986	296,329,153
당진시	81,257,514	246,389,674
아산시	221,377,873	660,323,499
천안시	292,768,082	1,087,467,340
예산군	78,912,402	219,193,979
홍성군	139,965,516	201,052,821
청양군	31,453,500	73,261,418
공주시	100,009,717	360,114,174
보령시	93,010,285	380,422,418
부여군	72,314,773	311,828,879
서천군	115,151,004	188,546,250
논산시	108,736,602	511,842,700
계룡시	21,803,910	59,172,107
금산군	69,000,800	205,416,477

〈표Ⅱ-27〉 2022년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관광분야	문화분야
태안군	73,399,850	203,543,655
서산시	129,422,115	389,248,379
당진시	115,769,292	314,327,175
아산시	337,457,701	845,202,861
천안시	402,579,265	1,389,922,793
예산군	92,492,330	303,895,054
홍성군	219,637,826	217,964,008
청양군	61,088,440	87,134,867
공주시	123,982,903	456,306,309
보령시	124,500,596	463,531,096
부여군	115,239,080	419,738,825
서천군	107,173,648	258,671,269
논산시	154,355,818	521,422,633
계룡시	32,434,804	89,848,434
금산군	90,538,620	269,058,879

다.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사례

1)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사가 참여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을 나들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했음.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제 초코파이 체험, 전주비빔밥 조리 식사, 한복 체험 등이 개최되어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됐음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2022년 10월 26일)

[그림Ⅱ-7] 공주시 노인복지관 사례

2)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27일 이용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은빛나들이를 진행했음. 이번 나들이 장소는 충남 태안군 일대로 코리아플라워파크, 태안 백사장포구, 수산시장, 서산 간월도 순으로 여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회원 간 친목을 도모했음



*출처 : 온아신문(<http://www.onanews.net/83075>, 2023년 4월 27일)

[그림 II-8]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례

3) 예산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충남 예산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난 15일 재가노인 11명과 덕산온천관광지 일대로 나들이를 다녀옴. 이번 나들이에 참여하신 재가 노인들은 거동의 어려움 많고 평균연령 90세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센터의 송영서비스를 통하여 나들이에 참여할 수 있었음. 온천단지 내 '선사시대 꺼떡돼지'의 후원으로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메타쉐콰이아길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긴 후 덕산온천 족욕장에서 산책의 피로를 풀고 카페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음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2023년 6월 16일)

[그림 II-9] 예산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례

4)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 충남 천안시는 지난 4월 29일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어려웠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봄꽃 나들이를 떠났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나들이는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홀몸어르신의 우울감 해소와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날 복지관 수행인력 7명과 돌봄 어르신 35여 명은 태안군 꽃지 해안공원 튜립축제를 찾아 추억을 만들었음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2023년 8월 19일)

[그림 II-10]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례

5)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 충남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증장애인과 가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나들이 씬’을 제주도 일원에서 가졌음. 이번 가족나들이는 서산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증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번도 제주도에 다녀오지 못한 분들을 우선 선발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관광 명소 탐방, 공연관람 등을 통해 좋은 추억을 쌓고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했음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2023년 8월 19일)

[그림 II-11]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사례

6)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 빛이되어 후원회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도내 시각장애 어르신과 1:1 매칭 1일 나들이 지원에 나서 지난 7일 도내 시각장애 어르신 20명과 함께 아산 도고 일대로 꽃구경 및 과일청 만들기 등 1일 나들이를 다녀왔음. 이번 나들이는 빛이되어 후원회 이사와 시각장애 어르신이 1:1로 매칭되어 안전뿐 아니라, 시각장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어 의미를 더했음



*출처 : 엠뉴스(<http://www.cmni.news>, 2022년 5월 11일)

[그림 II-12]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례

7)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축제 사례

- 금산군(4)
 - 금산 세계 인삼 축제
 - 금산 삼계탕 축제
 - 금산 비단고을 산꽃축제
 - 금산 사이사이 페스티벌
- 부여군(3)
 - 부여 서동 연꽃 축제
 - 부여 문화재 야행
 -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서천군(5)
 -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 서천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
 - 한산모시문화제

- 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제
- 홍원향 전어,꽃게 축제
- 청양군(2)
 - 청양 고추구기자축제
 - 청양 칠갑산 장승 문화축제
- 서산시(4)
 - 해미 벚꽃축제
 - 서산 갯마을축제
 - 삼길포우럭축제
 - 팔봉산 감자축제
- 당진시(2)
 - 왜목마을 해님이 해돋이축제
 - 심훈상록문화제
- 아산시(2)
 - 아트밸리 아산 영페스타
 - 성웅 이순신축제
- 논산시(3)
 - 논산 딸기축제
 - 논산 강경젓갈축제
 - 양촌곶감축제
- 예산군(3)
 - 예산맥주페스티벌
 - 예산황새축제
 - 예산 문화재야행
- 태안군(3)
 - 천리포수목원 목련축제
 - 태안 빛축제
 -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
- 홍성군(3)
 - 홍성남당항대하축제
 - 홍성남당항새조축제
 -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
- 계룡시(1)

- 계룡군문화축제
- 공주시(3)
 - 계룡산 벚꽃축제
 -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 백제문화제
- 보령시(3)
 - 보령머드축제
 - 해님이·해맞이축제
 - 무창포 신비의바닷길 대하·전어 축제
- 천안시(4)
 - 천안K-컬처박람회
 - 천안뽕뽕데이축제
 - 복면위례벚꽃축제
 - 천안 홍타령 축제

4. 소결

가. 지원제도의 확충

-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약자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국가적 지원보다는 민간지원 차원에서 각 복지관별로 일부 장애인을 위한 여행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복지관이 더 많음. 휴양시설확충, 숙소이용지원, 주기적으로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형 패키지여행 참여기회 제공, 관광상품 구매만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관광시설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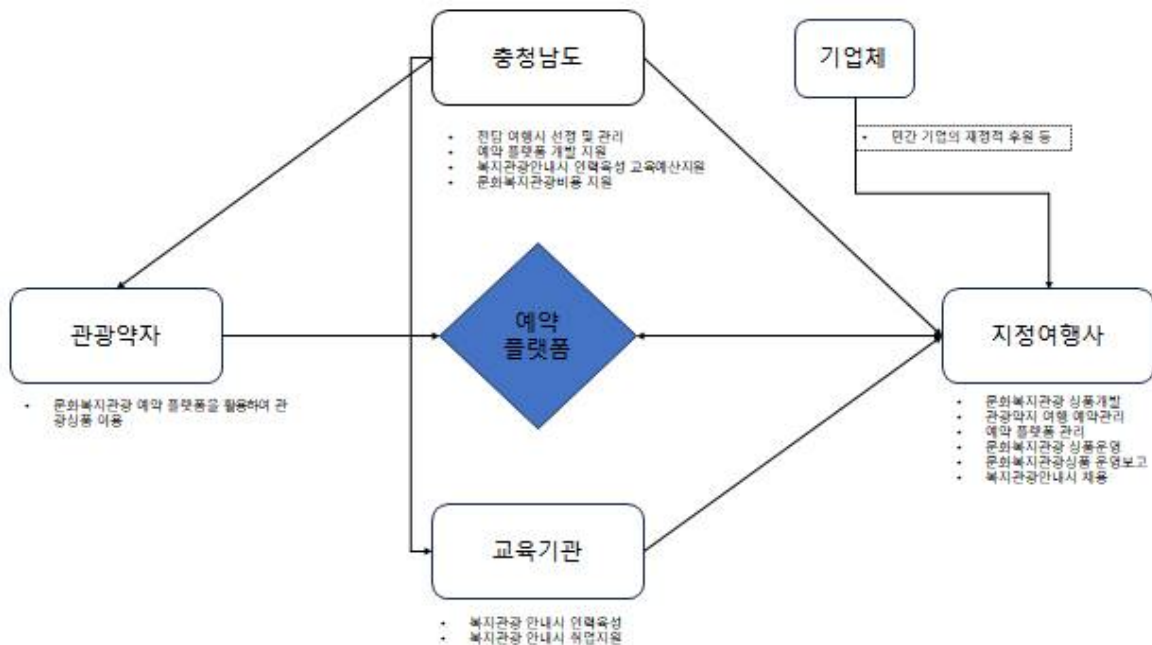
- 관광약자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은 지원시설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건설 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약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건설, 기존 시설의 할인을 통한 저렴한 가격 지원 등 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시설의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시설에는 세금의 경감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관광약자들이 편히 이용 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시설의 지원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웰니스 관광지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약자들이 편안하고 다양한 관광지를 선택하여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다. 전문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전문 여행사의 지정

- 복지 선진국의 지원모델을 참고하여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전문여행사를 지정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정부나 지자체와 여행업체가 협업하여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기업 여행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여행업체를 지정하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행업체에서는 저렴한 금액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그 차액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민간단체의 기부 등을 통해 여행업체에도 일정한 수익창출의 모델을 제시해야 됨
- 또한 관광약자들이 문화복지관광을 이용하고자 할 때 예약 및 결제와 상담이 통합적으로 가능한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 아래 그림은 전문 여행사 지정을 기반으로 한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모형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II-13]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모형 제시

라. 수익형 모델

- 복지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보다 오히려 민간단체의 기부에 의해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기부 동참에 대해 세제 지원, 저리 융자 등 보상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숙박시설이나 여행업체에서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지원을 통해 시설 이용이나 여행상품 등을 저렴한 요금으로 관광약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업체의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격화

-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관광객들은 관광약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임. 이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관광약자를 배려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광약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음. 그래서 저소득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관광객을 위한 전문 인력도 필요함. 사회복지와 관광을 융합한 전문자격증 제도가 필요한 이유임
- 이에따라 충청남도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지와 관광분야의 교육 커리큘럼을 정립하여 (가칭)복지관광안내사를 양성하여 관광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할 필요가 있음

바. 문화누리카드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현재 국내 복지관광의 대표적인 제도인 문화누리카드는 여행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에서 여행 부분은 별도의 지원카드를 만들어서 개별여행을 지원하고, 기획형 패키지여행을 만들어 단체여행을 실시하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취약계층의 사람들까지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함
- 충청남도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관광분야보다 문화분야의 소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관광분야의 사용 내역이 문화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관광업종의 사용금액이 문화분야 업종에 비해 결제 금액이 크고 당일 또는 1박2일 등 시간 또한 투자를 해야 하기에 연간 11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관광업종의 사용이 문화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적 시간적으로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음
- 관광약자들의 관광분야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금액을 관광분야에서의 사용에 한해서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충남 거주 저소득층의 문화
복지관광 경험과 욕구 조사

Ⅲ. 충남 거주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경험과 욕구 조사

1. 충남 거주 저소득층 대상 설문조사 분석

가.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충청남도 거주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실태 및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남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정책 설계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조사지역 및 조사 대상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및 아산시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개,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 행정복지센터 2개, 지역자활센터 1개

3) 조사 기간

- 2023년 6월 16일 ~ 2023년 8월 15일 (약 2개월)

4) 조사 대상

- 설문조사의 대상은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
 - 복지서비스 기관 이용자 및 지역 내 서비스 대상 가정의 가구원임

5) 조사 진행방법

- 본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각 기관에 방문하여 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등의 조사개요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종사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짐
- 각 기관 또는 서비스 대상 가정에서 대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6) 조사내용

-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Ⅲ-1〉 충남 거주 저소득층 대상 설문조사 주요 항목

대 상	구 분	주요 조사항목
저소득층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결혼상태, 장애여부, 장애종류, 가구 월 평균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등
	관광 경험 및 선호	최근 여행 경험, 선호하는 관광 유형, 지역, 기간, 교통편, 숙박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 등
	관광 관련 특성	관광 동기, 관광 제약, 관광 노력, 관광 참가의도 등
	관광 지원 관련 욕구	정부 지원에 대한 의향 등

7) 조사결과

- 총 481부 회수하여 최종 분석함

나.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은 남성 35.0%, 여성 65.0%임
- 연령별로는 20대 3.3%, 30대 4.8%, 40대 13.5%, 50대 21.1%, 60대 18.0%, 70대 이상 39.2%로 70대 이상이 가장 많으며, 평균 연령은 61.6세임
- 최종학력은 고졸 미만 39.6%, 고졸 47.0%, 전문대졸 1.5%, 대졸 6.3%, 대학원졸 이상 1.5%, 기타 4.1%임
- 직업은 자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34.2%, 무직 17.6%, 생산직 15.8%, 주부 11.1% 서비스직 7.3%, 사무직 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는 기혼 39.7%, 이혼 또는 별거 38.8%, 미혼 19.7%, 동거 1.7% 순으로 나타남
- 장애 여부는 장애 없음 78.6%, 장애 있음 21.4%로 나타남.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장애 유형에 응답한 70명은 지체뇌병변 장애 52.9%, 시각청각언어 장애 24.3%, 내부기관 장애 11.4%, 발달장애 5.7%, 정신장애 5.7% 순으로 나타남
- 월 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50.5%, 100만원 미만 42.9%, 200-300만원 미만 3.2%, 500만원 이상 2.6%, 400-500만원 미만 0.9% 순으로 나타남
-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 '1'에서 매우 좋음 '10'을 기준으로 평균 5.08점으로 나타남

〈표Ⅲ-2〉 충남 거주 저소득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64	35.0
	여성	305	65.0
연령	20대	15	3.3
	30대	22	4.8
	40대	62	13.5
	50대	97	21.1
	60대	83	18.0
	70대 이상	180	39.2
		평균 61.6세(SD=16.36)	
최종학력	고졸 미만	183	39.6
	고졸	217	47.0
	전문대졸	7	1.5
	대졸	29	6.3
	대학원졸 이상	7	1.5
	기타	19	4.1
직업	사무직	27	6.0
	서비스직	33	7.3
	생산직	71	15.8
	기술직	14	3.1
	전문직	14	3.1
	자영업	4	.9
	공무원	4	.9
	주부	50	11.1
	무직	79	17.6
	기타	154	34.2
결혼상태	미혼	91	19.7
	기혼	183	39.7
	동거	8	1.7
	이혼별거	179	38.8
장애 여부	장애 없음	378	78.6
	장애 있음	103	21.4
장애 유형 (n=70)	지체뇌병변	37	52.9
	시각청각언어	17	24.3
	내부기관	8	11.4
	발달	4	5.7
	정신	4	5.7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01	42.9
	100-200만원 미만	237	50.5
	200-300만원 미만	15	3.2
	400-500만원 미만	4	.9
	500만원 이상	12	2.6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5.08(SD=2.16)	

2) 관광 경험 및 선호

- 선호하는 여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등 취미활동’ 30.0%, ‘관광(여행) 프로그램’ 28.2%, ‘운동·건강관리’ 24.9%,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강좌’ 8.8%, ‘사교모임’ 4.8%, ‘기타’ 3.3% 순으로 나타남

〈표Ⅲ-3〉 선호하는 여가 프로그램

구 분	빈도	비율
문화·예술 등 취미활동	137	30.0
관광(여행) 프로그램	129	28.2
운동·건강관리	114	24.9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강좌	40	8.8
사교모임	22	4.8
기타	15	3.3

- 일상에서의 관광 필요 정도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 ‘필요하다’ 54.4%, ‘보통이다’ 18.8%, ‘필요하지 않다’ 5.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로 나타남

〈표Ⅲ-4〉 일상에서의 관광 필요 정도

구 분	빈도	비율
매우 필요하다	83	20.8
필요하다	217	54.4
보통이다	75	18.8
필요하지 않다	20	5.0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0

- 최근 1년 관광 경험 빈도는 ‘없었다’ 51.4%, ‘1-2회 있다’ 28.1%, ‘3-4회 있다’ 12.7%, ‘5-6회 있다’ 2.8%, ‘7회 이상 있다’ 5.0%로 나타남

〈표Ⅲ-5〉 최근 1년 사이 관광 경험 빈도

구 분	빈도	비율
없었다	238	51.4
1-2회 있다	130	28.1
3-4회 있다	59	12.7
5-6회 있다	13	2.8
7회 이상 있다	23	5.0

- 향후 1년 이내 관광 계획은 ‘전혀 없다’ 26.8%, ‘1-2회 있다’ 45.9%, ‘3-4회 있다’ 18.0%, ‘5회 이상 있다’ 9.8%로 나타남

〈표Ⅲ-6〉 향후 1년 이내 관광 계획

구 분	빈도	비율
전혀 없다	125	26.8
1-2회 있다	214	45.9
3-4회 있다	84	18.0
5회 이상 있다	43	9.2

- 선호하는 관광 유형은 ‘자연 관광(산, 바다 등)’ 66.1%, ‘문화 관광(사찰, 문화재 등)’ 14.5%, 사회 관광(축제, 행사 등) 7.2%, ‘기타’ 5.3%, ‘산업 관광(전시회, 쇼핑 등)’ 3.6%, ‘레크레이션 관광(수영장, 놀이공원 등)’ 3.2% 순으로 나타남

〈표Ⅲ-7〉 선호하는 관광 유형

구 분	빈도	비율
자연 관광(산, 바다 등)	310	66.1
문화 관광(사찰, 문화재 등)	68	14.5
사회 관광(축제, 행사 등)	34	7.2
기타	25	5.3
산업 관광(전시회, 쇼핑 등)	17	3.6
레크레이션 관광(수영장, 놀이공원 등)	15	3.2

- 선호하는 국내 관광 지역으로는 ‘제주’ 27.5%, ‘서울’ 17.4%, ‘강원’ 14.0%, ‘충청’과 ‘경상’ 각각 12.5%, ‘전라’ 7.7%, ‘경기/인천’ 4.9%, ‘기타’ 3.4% 순으로 나타남

〈표Ⅲ-8〉 선호하는 국내 관광 지역

구 분	빈도	비율
서울	81	17.4
경기/인천	23	4.9
충청	58	12.5
경상	58	12.5
전라	36	7.7
강원	65	14.0
제주	128	27.5
기타	16	3.4

- 선호하는 관광 기간은 ‘1박 2일’ 32.0%, ‘2박 3일’ 28.0%, ‘3박 4일’ 22.4%, ‘당일 여행(무박)’ 15.1%, ‘그 이상(4박 5일~)’ 2.4% 순으로 나타남

〈표Ⅲ-9〉 선호하는 관광 기간

구 분	빈도	비율
당일 여행(무박)	68	15.1
1박 2일	144	32.0
2박 3일	126	28.0
3박 4일	101	22.4
그 이상(4박 5일~)	11	2.4

- 선호하는 관광 파트너로는 ‘친구’ 34.3%, ‘자녀·가족’ 27.9%, ‘혼자’ 22.4%, ‘배우자·파트너’ 10.3%, ‘기타’ 5.1% 순으로 나타남

〈표Ⅲ-10〉 선호하는 관광 파트너

구 분	빈도	비율
친구	156	34.3
자녀·가족	127	27.9
혼자	102	22.4
배우자·파트너	47	10.3
기타	23	5.1

- 선호하는 관광 교통편은 ‘관광버스’ 39.5%, ‘기차’ 27.5%, ‘승용차’ 20.8%, ‘비행기’ 9.8%, ‘기타’ 2.4% 순으로 나타남

〈표Ⅲ-11〉 선호하는 관광 교통편

구 분	빈도	비율
관광버스	178	39.5
기차	124	27.5
승용차	94	20.8
비행기	44	9.8
기타	11	2.4

- 선호하는 관광 숙박시설로는 ‘호텔’ 42.4%, ‘민박’ 25.4%, ‘콘도’ 13.8%, ‘여관’ 11.4%, ‘기타’ 5.6%, ‘차량 또는 텐트 등 야영’ 1.3% 순으로 나타남

〈표Ⅲ-12〉 선호하는 관광 숙박시설

구 분	빈도	비율
호텔	190	42.4
민박	114	25.4
콘도	62	13.8
여관	51	11.4
기타	25	5.6
차량 또는 텐트 등 야영	6	1.3

-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은 ‘경험 없음’이 47.5%, ‘경험 있음’이 52.5%로 나타남

〈표Ⅲ-13〉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

구 분	빈도	비율
경험 없음	214	47.5
경험 있음	237	52.5

-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7.5%, ‘만족’ 43.2%, ‘보통’ 22.3%, ‘불만족’ 3.5%, ‘매우 불만족’ 3.5%로 나타남

〈표Ⅲ-14〉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대한 만족도(n=229)

구 분	빈도	비율
매우 만족	63	27.5
만족	99	43.2
보통	51	22.3
불만족	8	3.5
매우 불만족	8	3.5

-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이 만족스러웠던 경우, 만족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40.4%, ‘문화여가활동이 늘었다’ 26.5%,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다’ 11.9%, ‘더 생활이 활기차졌다’ 11.9%, ‘기타’ 9.3% 순이었음

〈표Ⅲ-15〉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만족스러운 이유(n=151)

구 분	빈도	비율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61	40.4
문화여가활동이 늘어났다	40	26.5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다	18	11.9
더 생활이 활기차졌다	18	11.9
기타	14	9.3

-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이 불만족스러웠던 경우,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연간 지원 금액이 부족했다' 50.0%,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다' 50.0%이었음

〈표Ⅲ-16〉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만족스러운 이유(n=16)

구 분	빈도	비율
연간 지원 금액이 부족했다	8	50.0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다	8	50.0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0	0.0
신청 및 발급 과정이 어려웠다	0	0.0
기타	0	0.0

3) 관광 관련 특성

- 관광 동기에 대한 문항은 총 12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음.
- 관광 동기 12문항 전체 평균은 3.38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평균이 높은 문항은 '아름다운 관광지의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73점, '해당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62점, '휴식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62점, '기분전환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55점, '고된 일상을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서 관광(여행)을 한다' 3.54점, '새로운 곳을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 관광(여행)을 한다' 3.52점 등으로 나타남

〈표Ⅲ-17〉 관광 동기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아름다운 관광지의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73	1.11
2) 해당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62	1.14
3) 휴식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62	1.16
4) 기분전환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55	1.15
5) 고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서 관광(여행)을 한다	3.54	1.09
6) 우울함을 떨치고 활력을 얻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45	1.09
7) 새로운 곳을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 관광(여행)을 한다	3.52	1.21
8) 해당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30	1.13
9)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21	1.09
10) 역사유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3.02	1.26
11) 관광지에 있는 좋은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2.99	1.19
12) 자신이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2.91	1.21
전체 문항	3.38	0.84

- 관광 제약에 대한 문항은 총 6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음.
- 관광 제약 6문항 전체 평균은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평균이 높은 문항은 ‘여행경비가 부담스러워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3.54점, ‘정부나 단체의 지원이 부족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97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93점, ‘건강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79점, ‘관광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77점,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71점 순으로 나타남

〈표Ⅲ-18〉 관광 제약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여행경비가 부담스러워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3.54	1.15
2) 정부나 단체의 지원이 부족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97	1.18
3)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93	1.27
4) 건강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79	1.28
5) 관광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77	1.12
6)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2.71	1.23
전체 문항	2.96	.86

- 관광 노력에 대한 문항은 총 6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음.
- 관광 노력 6문항 전체 평균은 3.05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평균이 높은 문항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가까운 지역이라도 우선 가보고자 한다’ 와 ‘정부나 지자체에 여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한다’ 3.27점,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관광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탐색을 하고자 한다’ 3.17점, ‘여행 경비 충당을 위해 저축을 하고자 한다’ 2.80점, ‘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여행을 가기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57점 순으로 나타남

〈표Ⅲ-19〉 관광 노력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가까운 지역이라도 우선 가보고자 한다	3.27	1.11
2) 정부나 지자체에 여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한다	3.27	1.20
3) 관광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탐색을 하고자 한다	3.17	1.09
4)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17	2.73
5) 여행 경비 충당을 위해 저축을 하고자 한다	2.80	1.12
6) 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여행을 가기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57	1.08
전체 문항	3.05	.93

- 관광 참가 의도에 대한 문항은 총 3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음.
- 관광 참가 의도 3문항 전체 평균은 3.67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평균이 높은 문항은 ‘기회가 된다면 관광(여행)에 참가하고 싶다’ 3.91점, ‘관광(여행)에 적극 참가할 의사가 있다’ 3.82점, ‘관광(여행)에 참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3.27 순으로 나타남

〈표Ⅲ-20〉 관광 참가 의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기회가 된다면 관광(여행)에 참가하고 싶다	3.91	1.02
2) 관광(여행)에 적극 참가할 의사가 있다	3.82	1.09
3) 관광(여행)에 참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3.27	1.20
전체 문항	3.67	.94

4) 관광 지원 제도에 대한 요구

- 관광을 위해 지원되었으면 하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였음. 1순위로 가장 원하는 제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취약계층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69.1%가 1순위로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저렴한 숙박시설의 확대’ 9.0%, ‘취약계층 관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양성’ 8.8%, ‘복지관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양성’ 6.0%, ‘관광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 없는 환경 조성’ 3.9%, ‘복지관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망 구축’ 3.2% 순이었음

〈표Ⅲ-21〉 관광을 위해 지원되었으면 하는 제도(1순위)

구 분	빈도	비율
취약계층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299	69.1
저렴한 숙박시설의 확대	39	9.0
취약계층 관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양성	38	8.8
복지관광 전문여행업체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양성	26	6.0
관광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 없는 환경 조성	17	3.9
복지관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망 구축	14	3.2

- 향후 정부 경비 지원 여행에 대한 참가 의향에 대해 살펴보았음. 전체 응답자의 94.6%가 향후 정부의 여행경비 지원으로 여행을 다녀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Ⅲ-22〉 향후 정부 경비 지원 여행에 대한 참가 의향

구 분	빈도	비율
참가 의향 있음	434	94.6
참가 의향 없음	25	5.4

2. 소결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34.2%, 무직 17.6%의 비율이 높으며 월 평균 소득 수준은 100-200만원 미만 50.5%, 100만원 미만 42.9%로 나타남.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확인하였음
-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관광(여행)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28.2%)로 나타남. 더불어 일상에서 관광(여행)의 필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 ‘필요하다’ 54.4%으로 전체 응답자의 75.2%가 관광(여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관광(여행)을 선호하며,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그에 반해, 실제 조사대상자들의 최근 1년 관광 경험 빈도는 ‘없었다’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선호도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실제 경험의 차이가 나타남
- 가장 선호하는 관광 유형은 ‘자연관광’ 66.1%, ‘문화관광’ 14.5% 순이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제주’(27.5%), 가장 선호하는 관광 기간은 ‘1박 2일’(32.0%),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는 ‘친구’(34.3%), 가장 선호하는 교통편은 ‘관광버스’(39.5%), 가장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호텔’(42.4%)로 나타남
-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2.5%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3.2%, ‘매우 만족’ 27.5%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만족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40.4%), ‘문화여가 활동이 늘어났다’(26.5%) 등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잘 활용되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 불만족한 경우에는 ‘연간 지원 금액이 부족했다’(50.0%),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다’(50.5%)는 응답이 나와 제도의 확대와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관광(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제약으로 ‘여행경비 부담’과 ‘정부나 단체의 지

원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지원 제도에 대한 요구로 '취약계층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관광(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음

IV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

IV.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

1. SWOT 분석

가. 분석 개요

1) 목적

-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함

2) 개요

- 사회복지분야 전공교수 1인과 박사과정생 1인, 관광학과 교수 1인과 박사 1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의 논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측면에서 충남 지역의 강점 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의 정성적인 SWOT 요인을 도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음

3) 분석 근거 자료

- 아래와 같은 정책 및 실태 자료, 연구 보고서,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분석하였음
 - 국내 문화복지관광 제도
 -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제도
 - 해외 문화복지관광 제도
 - 충청남도 관광약자 현황
 - 충청남도 거주 저소득층 대상 설문조사 분석자료
 - 충청남도 5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 천안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3년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 2023년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매뉴얼
 -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나. 분석 결과

- 충청남도 내외 환경을 감안한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강점으로는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여행 및 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행, 나들이, 문화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도 미비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 지원 사업이 존재함. 문화체육관광부 여행마우처 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사업, 고용노동부 근로자콘도지원 사업 등이 있음. 충청남도 지역 내 다양한 문화복지관광 축제 및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금산구의 금산 세계 인삼 축제, 부여군의 부여 서동 연꽃 축제, 당진시의 왜목마을 해넘이 해돋이축제, 보령시의 보령머드축제 등 수십 개의 축제가 있음.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관광약자에게서 높은 여행 욕구와 정부 경비지원 여행에 대한 참가 의향을 확인하였음. 일상에서 관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5.2%였으며, 1년 이내 관광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3.2%로 나타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0.7%가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약점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낮은 생산연령인구 비율, 높은 노인인구 비율, 낮은 가구소득, 높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높은 이혼율, 높은 등록장애인 비율 등이 있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지원이 부재하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및 건설이 부족함. 관광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없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있어 불만족하는 경우, 연간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회로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여행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여행 산업이 증대하는 추세라는 것임. 더불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저소득 계층의 여가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음. 충남지역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산, 바다 등 기존에 갖추어진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충청남도를 지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기부에 의해 여행지원을 개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 등 복지적 마인드와 관광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인력을 배출하는 자격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 역시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인구의 증가는 문화복지관광의 수요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위협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숙박시설 비용 증대 등 국내 여행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것임. 충청남도의 낮은 재정자립도, 낮은 복지 및 관광예산 비율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

화복지관광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임. 더불어 기존의 여행 인프라는 관광약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표Ⅳ-1〉 SWOT 분석 결과

구 분	주요 요인
내부환경	강점 (Strength) - 민간차원의 다양한 여행/관광 관련 프로그램 시행 -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 지원 사업 - 충청남도 지역 내 다양한 문화복지관광 축제 및 행사 - 관광약자의 여행 욕구 높음 - 관광약자에게서 정부 경비지원 여행에 대한 높은 참가 의사 발견 -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만족도 높음
	약점 (Weakness) - 낮은 생산연령인구 비율, 높은 노인인구 비율 - 낮은 가구소득, 높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높은 이혼율 - 높은 등록장애인 비율 -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부재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및 건설 부족 - 국가적 지원 부족 - 관광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없음 - 문화누리카드의 한계
	기회 (Opportunity) - 코로나 이후 여행 산업 증대 추세 - 저소득계층의 여가권 보장에 대한 인식 확대 - 도농복합지역으로 산, 바다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가능성 높음 - 민간단체 기부에 의한 여행지원 개발 가능성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사회복지와 관광을 융합한 자격제도에 대한 수요 -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인구 증가
외부환경	위협 (Threat) - 여행을 위한 비용 증가(숙박시설 등) - 낮은 재정자립도 - 낮은 복지 및 관광예산 비율 - 관련 정보 부족 -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 인프라 부족

- SWOT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도출하였음
- 기회활용의 측면에서는 국내 여행 산업 증대를 기회로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 분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임.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력적인 관광지를 개발하여 충청남도 내 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지역 내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관광 축제 및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 사회 전반에 저소득층의 여가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음

- 위협극복의 측면에서 여행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충청남도 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여행 지원 업체를 모집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충청남도의 문화복지관광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정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복지관광 관련 정보 인트라넷을 구축해야 함
- 약점보완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제도의 경우, 여행 분야를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을 독려하며 사용처를 확대하여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함. 다양한 복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프로그램 확대를 도모해야 함
- 역량강화의 측면에서는 문화복지관광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사회복지와 관광 분야의 연계 협력 증진시켜야 하며, 지역 내 대학 및 기업자원의 활용을 제고해야 함

〈표Ⅳ-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구 분	주요 전략
기회활용 (SO)	-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 분야 확대 - 충청남도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 지역 내 문화복지관광 축제 및 행사 확대 및 홍보 - 저소득층의 여가권 보장을 위한 기부 캠페인
위협극복 (ST)	- 충청남도 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여행 지원 모집을 통한 비용 절감 - 충청남도의 문화복지관광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문화복지관광 관련 정보 인트라넷 구축
약점보완 (WO)	-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모색 - 문화누리카드 제도 보완 - 다양한 복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
역량강화 (WT)	-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 사회복지와 관광 분야의 연계 협력 증진 - 지역 내 대학 및 기업자원의 활용제고

2. 소결

- SWOT 분석에 의한 강점에는 민간자원의 다양한 여행/관광 관련 프로그램 시행,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 지원 사업, 관광약자의 높은 여행 욕구 및 정부 경비지원 여행에 대한 참가 의사 등이 있음.

- 약점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관광약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생산연령인구 및 가구 소득이 낮은 점,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지원 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이 있음
- 기회로는 사회 전반의 여행 욕구 및 여행 산업 증대 추세, 저소득 계층의 여가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 충남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의 가능성, 민간단체의 기부 가능성, 문화복지관광 영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이 있음
- 위협으로는 국내 여행 비용 증대, 충청남도의 낮은 재정자립도, 낮은 복지 및 관광예산 비율, 관련 정보 및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 인프라 부족 등이 있음
- 기회활용의 측면에서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 분야 확대,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저소득층 여가를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 추진 등이 있음
- 위협극복의 측면에서는 충청남도 내 숙박업체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충청남도의 문화복지관광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문화복지관광 관련 정보 인트라넷 구축 등이 있음
- 약점보완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모색, 문화누리카드 제도에서 여행 지원금 증대, 복지기관 및 기업으로 저소득층 문화복지관광 프로그램 적극적 홍보 등이 있음
- 역량강화의 측면에서는 문화복지관광 전문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지원, 사회복지와 관광 분야의 연계 협력 증진, 지역 내 대학 및 기업자원의 활용 제공 등이 있음

V

결론

V. 결론

-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충남형 저소득층 문화복지관광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조사, 충남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충남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관광약자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충

- 충청남도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문화분야의 사용이 관광분야의 사용보다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관광분야로 사용하려면 여러 제약요인이 발생되는데 첫째, 당일여행 및 숙박여행을 하려면 최소 1인 1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됨.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복지누리카드)의 연간 이용금액은 11만원으로 관광분야로 사용이 제한적임. 그로 인하여 문화누리카드는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 도서, 공연 등 문화분야쪽으로 사용이 편중되어 있음
- 이에 관광약자들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업종을 이용하는 관광약자에게 11만원 예산에 추가 지원을 하여 관광분야의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예) 관광상품을 이용 시 문화누리카드 11만원 + 20만원(예산지원)을 지원하여 총 1인 31만원을 지원

□ 관광상품 이용의 편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홍보

- 문화누리카드 사용에서 관광분야의 사용이 적은 것은 관광상품을 상담받고 예약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홍보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관광약자들이 관광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과 예약 및 결제 그리고 이용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관광약자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은 관광약자들이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구축한 플랫폼은 각 시/군의 사회복지관 및 민간 복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관광약자들이 플랫폼을 통하여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SNS와 지역 언론사 등에 홍보를 통하여 충청남도의 시민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플랫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복지관광상품의 전담 사회적 기업 육성 또는 전담 여행사 지정

- 관광약자들을 위한 문화복지관광상품은 일반 관광상품보다 기획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충청남도에서 사회적 기업 또는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여행사를 지정하여 문화복지관광상품을 운영 및 관리하게 하여 관광약자들이 편안하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 사회적 기업 또는 전담 여행사 운영(안)

- 기획형 패키지여행을 통한 여행기회의 확대: 각 지자체 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패키지여행을 기획하여 행정기관을 통한 안내와 참여 독려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행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기회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소득층의 여행참여 횟수는 증가되고 저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기획형 패키지여행에 대한 기획은 전문여행사에서 담당하고 원만한 행사진행을 해야 함
- 일반 패키지여행에 대한 지원: 지자체에서는 각 저소득층 가정에 연간 일정 금액의 여행 지원금을 신설하고, 민간기업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 가족의 여행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은 여행 취약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저소득층 주민의 일반 패키지여행 예약을 전문여행사에서 대행해 주며, 적절한 할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개별여행에 대한 지원: 지자체에서는 각 저소득층 가정에 연간 일정 금액의 여행 지원금을 신설하고 민간기업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 가족의 개별여행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미리 여행계획서를 제출받고 검토 후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주며, 여행 후 실제 지불한 영수증을 토대로 적정 금액의 지원이 필요함. 최근 단체여행보다는 가족 단위의 여행이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가족여행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 이러한 개별여행에 대해 여행에 필수적인 교통기관, 숙소 등의 예약을 전문여행사에서 대행해주고 할인을 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함
- 재정의 확보: 충청남도의 년 예산만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광 지원은 한계가 있음. 이러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재정지원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과 지자체 사업 선발과정에 가산점 제공 등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민간기업에서는 복지관광 지원을 통해 기업 이미지의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문화복지관광 전문인력 양성

- 관광약자들은 장애인/한부모가정/고령인구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잘 알고 관광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 분야와 관광 분야의 이론과 실무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광약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충청남도에서 교육기관을 인증 또는 지정하여 (가칭)복지관광안내사 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자격증에 등록하여 운영을 하면 충청남도의 인증 또는 지정과 민간자격증의 등록을 통하여 관광약자들에게 공신력을 줄 수 있으며, 수강생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력들은 전담 운영기관의 취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음

□ 문화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등 여행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 해당 사업의 수요자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기관, 시설의 사회복지사 역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학령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족(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우선),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문화복지관광 사업의 잠재수요자들은 정보접근성이 취약함. 따라서 다양한 홍보 채널 방식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함
- 무엇보다 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공공기관 및 주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관광 사업을 인지하고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정보 전달 및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 국내 및 해외 정책 및 프로그램 자료, 충청남도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음
-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복지관광 분야의 전문가,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충남 전역 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문화복지관광 분야의 전문가는 사회복지분야 또는 관광분야에 해당되는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복지관광의 의미와 필요성, 주요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해야 함
-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문화복지관광의 의미와 필요성, 주요 서비스 대상, 문화복지관광 추진 수행체계 등을 모색해야 함
-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한 보다 구체적인 문화복지관광에 대한 경험 및 욕구, 여행 제약 요인, 문화복지관광 관련 현행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탐색해야 함

참고문헌

- 고미영·양성수(2016). 국내 학술지 복지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동북아관광연구, 12(4), 181-201
- 고상동·김상희(1996). 노인층의 관광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9(2), 35-51.
- 고영길·박용민·곽영대(2014). 복지여행상품 선택속성 요인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6(2), 405-421.
- 강현철·류성진(2014). 문화관광콘텐츠산업 분야의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 김윤우(2014). 복지관광이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9(5), 475-500.
- 김영준(2017). 국내 문화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연구. 지역과문화, 4(2), 45-62.
- 김명아·전주열·장원규(2019).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주·최경은·김형중(2020). 인구구조 변화와 국내관광 정책 방향. 한국관광정책, 82, 88-94.
- 김현(2003).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3, 46-67.
- 김향자·유지윤(1999). 여행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문화관광연구원
- 노영순(2011). 친서민 관광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1-25
- 노영순(2013). 국민행복 시대, 복지관광의 현안과 정책방향. 한국관광정책, (51), 16-31.
- 문상정(2016). 지체장애인에게 문화관광의 가치는 무엇인가?-수단-목적 사슬이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69, 1-29.
- 민웅기(2012). 성찰적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관광의 의미: 욕구의 개인화와 생활문화적 시민권 개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4(3), 123-143.
- 박근수(1998). 한국 관광산업에서의 노인시장: 탐색적 연구, 관광개발논총, 8: 263-283
- 박세종(2014). 문화관광 연구의 이론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모색. 관광연구저널, 28(2), 37-49.
- 박숙진(2005). 한·독 문화관광정책의 영역과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1),

35-54.

배만규·박상훈(2008). 청각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이 삶의 질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3(2), 185-205.

변우희·이정열·변성희(2013). 문화관광의 진단과 지역문화관광정보서비스 융합모형. 관광학연구, 37(9), 71-90.

엄완용(2012). 복지관광 참가대상자의 참가동기와 만족도의 관계. 관광연구, 27(5), 371-387.

오석윤·오석찬(2000). 노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관광지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15(2), 219-239.

오창윤·조윤설(2015). 제주 목축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연구: 조랑말박물관 문화관광상품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1), 343-356.

우경진·윤동환(2018). 한국 복지관광의 개선분야 중요도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융합관광콘텐츠연구, 4(1), 17-28.

이봉구(2008). 관광 관련 제약요인이 장애인의 관광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eligman의 무력감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2(2), 39-59.

이연택·김자영. (2013). 여행바우처정책의 경로의존단계적 변화 분석. 관광연구논총, 25(2), 57-79.

이종문(1988). 복지관광의 이해. 서울:일신사.

이훈(2008). 한국장애인 관광의 실태와 해외사례분석. 한국관광정책, 34, 31-37.

이성태(2017). 해외 주요국의 휴가문화비교. 문화관광연구원.

전영록·박상훈(2009). 장애인의 관광활동 유형별 자기지각 삶의 질 비교-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비교. 관광연구, 23(4), 375-396.

정기용(2005). 일본 연금복지사업단의 복지관광정책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25, 157-169.

정성채(2002).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노령관광객 관광상품선호경향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방향-, 문화관광연구, 4(2), 347-363.

정진영(2017). Social Tourism 개념과 연구 과제에 대한 고찰. 관광연구논총, 29(3), 83-105.

정혜진·정승환·최영재(2022). 문화관광 축제체험이 진정성과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화성문화제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243(1), 78-92.

최수남(2014). 복지관광의 정책변화 분석: 한국과 유럽 복지관광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논총, 26(1), 97-122.

한숙영·박상곤·전민지(2017). 여행바우처 이탈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486-497.

한국관광공사(2019). 18-19 추천 웰니스 관광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해외동향분석: 문화관광 분야의 공정성. 제26호.

Minnaert, L., Maitland, R., & Miller, G.(2011). What is social tourism

Minnaert, L. (2014). Social tourism participation: The role of tourism inexperience and uncertainty. Tourism Management, 40, 282-289.

네이버 지식백과. 웰니스 관광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프랑스 관광청

서울시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6210?listPage=4>

서울시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category/tour-news_c1/tourism_c1/tourism-news-n1

열린관광,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intro03.do>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0801154607423>

강원일보 <https://www.kwnews.co.kr/page/view/2013122900000000150>

문화누리 <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문화샘터 <https://stat.mcst.go.kr/portal/staticPop/STBL-1031179/1>

부 록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문화복지관광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보장됨을 말씀드리고 외부 유출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설문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해 주십시오.

1. 평소에 선호하는 여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강좌 ② 운동·건강관리 ③ 문화·예술 등 취미활동
④ 관광(여행) 프로그램 ⑤ 사교모임 ⑥ 기타 ()

2. 일상생활에서 관광(여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다음은 관광(여행) 동기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고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2) 우울함을 떨치고 활력을 얻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3)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4) 기분전환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5) 휴식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6) 자신이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7) 새로운 곳을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8) 역사유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9) 아름다운 관광지의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10) 해당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11) 해당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12) 관광지에 있는 좋은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한다	1	2	3	4	5

4. 다음은 관광(여행) 제약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1	2	3	4	5
2) 여행경비가 부담스러워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1	2	3	4	5
3)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1	2	3	4	5
4) 건강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1	2	3	4	5
5) 정부나 단체의 지원이 부족해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1	2	3	4	5
6) 관광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관광(여행)을 가지 못 한다	1	2	3	4	5

5. 다음은 관광(여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여행을 가기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1	2	3	4	5
2) 여행 경비 충당을 위해 저축을 하고자 한다	1	2	3	4	5
3)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1	2	3	4	5
4) 육체적 힘들지 않고 가까운 지역이라도 우선 가보고자 한다	1	2	3	4	5
5) 정부나 지자체에 여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한다	1	2	3	4	5
6) 관광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탐색을 하고자 한다	1	2	3	4	5

6. 다음은 관광(여행) 참가 의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기회가 된다면 관광(여행)에 참가하고 싶다	1	2	3	4	5
2) 관광(여행)에 적극 참가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3) 관광(여행)에 참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1	2	3	4	5

7.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관광(여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었다 ② 1-2회 있다 ③ 3-4회 있다 ④ 5-6회 있다 ⑤ 7회 이상 있다

8. 앞으로 1년 이내에 관광(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① 전혀 없다 ② 1-2회 있다 ③ 3-4회 있다 ④ 5회 이상 있다

9. 선호하는 관광(여행)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문화 관광(사찰, 문화재 등) ② 자연 관광(산, 바다 등) ③ 레크레이션 관광(수영장, 놀이공원 등)
④ 산업 관광(전시회, 쇼핑 등) ⑤ 사회 관광(축제, 행사 등) ⑥ 기타 ()

10. 선호하는 국내 관광(여행)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충청 ④ 경상 ⑤ 전라 ⑥ 강원 ⑦ 제주 ⑧ 기타 ()

11. 선호하는 여행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당일 여행(무박)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그 이상(4박 5일~)

12. 관광(여행)을 하실 때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 ① 혼자 ② 배우자·파트너 ③ 자녀·가족 ④ 친구 ⑤ 기타 ()

13. 관광(여행)을 하실 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 ① 승용차 ② 관광버스 ③ 기차 ④ 비행기 ⑤ 선박 ⑥ 기타 ()

14. 관광(여행) 하시는 동안에는 주로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 ① 민박 ② 여관 ③ 호텔 ④ 콘도 ⑤ 차량 또는 텐트 등 야영 ⑥ 기타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⑥ 기타 ()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사무직 ② 서비스직 ③ 생산직 ④ 기술직 ⑤ 전문직
⑥ 자영업 ⑦ 공무원 ⑧ 주부 ⑨ 무직 ⑩ 기타 ()

5.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미혼 ② 기혼(함께 거주, 주말부부 등) ③ 동거 ④ 이혼 또는 별거

6. 귀하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 해주십시오.

- ① 배우자 () ② 자녀 (), 있으면 ()명 ③ 귀하의 어머니 () ④ 귀하의 아버지 ()
⑤ 배우자의 어머니 () ⑥ 배우자의 아버지 () ⑦ 귀하의 형제/자매 (), 있으면 ()명

7. 귀하의 장애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장애 없음() ② 장애 있음() (→ 있다면 7-1번에 응답해주세요.)

7-1. 해당되는 장애 유형은? (주된 유형 1개)

- ① 지체·뇌병변 장애 ② 시각·청각·언어 장애 ③ 안면 장애
④ 내부기관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장애)
⑤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⑥ 정신장애

8.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9. 귀하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본인의 지난 한 주간 건강상태를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좋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좋다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

발 행 일	2023년 10월
발 행 처	충청남도의회
주 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수행기관	나사렛대학교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